

# 2025 인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 Contents

<b>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b>	<b>3</b>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뜨겁게 날아오르는 인도 증시	5
나. Make in India의 고도화	8
다. IT 소프트웨어로 뜬 인도, 반도체 제조 산업에도 진출	11
라. 갈 길 바쁜 인도, 발목 잡는 제조업·도시 인프라	14
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본격적인 한류 확산	17
<b>II. 비즈니스 환경 분석</b>	<b>19</b>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9
2. 시장 분석	29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9
나. 교역 (주재국의 교역 현황)	31
다. 투자	33
라. 프로젝트	37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42
가. 교역	42
나. 투자 진출	44
다. 협력 유망 분야	46
<b>III. 진출전략</b>	<b>47</b>
1. PEST 분석	47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8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70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77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81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83

## 1. 개요

### 가. 시장 전망

□ (경제성장) 단일부가가치세(GST) 도입, 노동법 통합 등 기업환경 개선 통해 2014년 이후 6~7%대 고성장 지속, 2027년 일본·독일 제치고 3대 경제대국 전망(IMF, '24.7월)

- (모디 3기 출범) 2024.6월 모디 총리 3연임 성공으로 제조업 발전 등 친기업·경제발전 정책은 이어질 전망, 빈부격차·청년실업률 등 사회문제 해결은 과제
- (GDP) 인도 경제 '14년 이후 7%대의 고성장 지속 중, '23년 8.2%, '24년 7.0%(e)IM F성장하여 세계 경제 新엔진으로 자리매김

\* '24년 인도 GDP 3.94조 달러, '27년 일본·독일 제치고 3대 경제대국 전망(IMF, '24.7월)

□ (제조업·인프라 육성) Make in India 기반 제조업 육성, 산업구조 개선, 수출 확대 위한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개

- (제조업) 제조업 육성과 해외 투자 유치를 활용한 제조업 생산기지화 추진, 모바일·전기차·배터리 등 14개 부문 생산 연계 인센티브 통한 자국 내 생산 유도
- (물류·인프라) 인프라 통합 계획 Gati Shakti(국가인프라개발계획) 전개, 물류비용 절감 위한 공항·항만·도로 연결성 강화, 전력·수도 등 제조업 인프라 개선

□ (국제사회 위상 강화) '24년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 부상한 인도, 중국의 경제 회복 지연 및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

- (글로벌 사우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인도. 글로벌 사우스 목소리 대변하며 국제사회 해결사 역할 자처
- (공급망 재편 반사이익)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에 따라 인도가 주요 협력 대상으로 부각,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투자진출 다변화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

□ (디지털 통합경제)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및 정부 주도의 디지털 신분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14억 명의 온라인 통합시장 형성, 관련 온라인 플랫폼 활황

- (스마트폰·5G 보급) '25년 인도 전역 스마트폰 보급률 약 75%로 전망되며, 농촌지역의 통신망 접근 확대 중, 선호 스마트폰 또한 보급형에서 프리미엄으로 변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 통합 온라인 결제 시스템 통해 비현금 기반 결제가 용이하게 되어 전자상거래 기반 온라인 쇼핑 급속도로 활성화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1,383	1,396	1,408	1,417	1,429	1,451	1,464
명목GDP*	십억 달러	2,836	2,668	3,147	3,389	3,615	3,845	4,127
1인당 명목GDP*	달러	2,050	1,913	2,238	2,391	2,612	2,730	2,980
실질성장률*	%	3.8	-6.0	9.2	7.0	8.2	7.0	6.5
실업률	%	12	18.6	15.9	10.5	8.1	8.1	7.9
소비자물가상승률	%	3.7	6.6	5.1	6.7	5.7	4.7	4.3
재정수지(GDP대비)*	%	-4.6	-9.2	-6.8	-6.4	-5.6	-4.9	-4.4
총수출	십억 달러	324.2	276.4	395.4	453.2	431.4	461.5	490.1
(對韓 수출)	"	5.5	4.9	8.0	8.9	6.7	4.3 (1~8월)	-
총수입	"	485.9	373.2	573.1	720.2	673.7	724.9	765.2
(對韓 수입)	"	15.0	11.9	15.6	18.8	17.9	12.6 (1~8월)	-
무역수지	십억 달러	-161.7	-96.8	-177.7	-267.0	-243.7	-264.9	-276.7
경상수지	"	-29.7	32.7	-33.4	-91.8	-30.2	-18.1	-21.6
환율(연평균)	현지국/US\$	70.42	74.10	73.92	78.60	82.6	83.8	85.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31	156	180	132	126	119 (1~8월)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499	593	587	460	413	285 (1~6월)	-

주: 2024년, 2025년은 전망치, \*은 인도 회계연도(당해년 4월~차년 3월) 기준

자료: 인구, 명목GDP,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총수출, 총수입, 환율, 무역수지, 경상수지(EIU); 1인당 명목GDP, 실질성장률(IMF); 對韓 수출입(KITA); 해외직접투자(印 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印 산업무역진흥청)

##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뜨겁게 날아오르는 인도 증시
- ※ Make in India의 고도화
- ※ IT 소프트웨어로 뜬 인도, 반도체 제조 산업에도 진출
- ※ 갈 길 바쁜 인도, 발목 잡는 열악한 제조업·도시 인프라
- ※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본격적인 한류 확산

### 가. 뜨겁게 날아오르는 인도 증시

□ '24년 1월, 인도 세계 4위 주식시장 등극하며 신형시장 성장 엔진으로 부상

- **센섹스 지수는 연초 대비 18.40% 증가하였으며, '24년 9월 센섹스 85,978p 최대치 달성(2024년 9월 27일 마감 기준)**

\* 센섹스(Sensex) :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 기업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주가지수

- NIFTY50 지수는 '96년 4월 기본지수 1,000으로 시작하였으며, '24년 9월까지 약 26배\* 증가한 26,175p 달성(2024년 9월 27일 마감 기준)

\* NIFTY 50 : 인도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인도 기업 50개의 가중 평균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로, NIFTY 50은 뭄바이 증권거래소의 BSE SENSEX와 함께 인도 대표 주가지수

\* S&P 500은 '96.11월 748포인트에서 '24.9월 5,738포인트로 동기간 약 7.7배 증가에 그침

#### 〈인도 센섹스, 니프티 지수 '24년 연초 대비 상승률〉



자료: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 국립증권거래소

### 〈인도 증시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연번	기업명	업종	시가총액 (천만 루피)	시가총액 (조 원)
1	RELIANCE INDUSTRIES	정유	2,065,198	323.6
2	TATA CONSULTANCY SERVICES	소프트웨어·컨설팅	1,559,052	244.3
3	HDFC Bank	은행	1,337,187	209.5
4	BHARTI AIRTEL	통신	987,905	154.8
5	ICICI BANK	은행	920,521	144.2
6	INFOSYS	소프트웨어·컨설팅	791,897	124.1
7	STATE BANK OF INDIA	은행(공공)	716,334	112.2
8	HINDUSTAN UNILEVER	FMCG(소비재)	696,889	109.2
9	ITC	FMCG(소비재)	653,835	102.5
10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생명보험	647,617	101.5
11	LARSEN & TOUBRO	토목 건설	509,546	79.8
12	HCL TECHNOLOGIES	소프트웨어·컨설팅	490,821	76.9
13	Bajaj Finance Limited	비은행 금융	480,106	75.2
14	SUN PHARMACEUTICAL	제약	467,595	73.3
15	MARUTI SUZUKI INDIA	자동차	424,360	66.5
16	NTPC	발전	424,278	66.5
17	MAHINDRA & MAHINDRA	자동차	395,697	62.0
18	AXIS BANK	은행	393,508	61.7
19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석유 탐사 및 생산	373,194	58.5
20	KOTAK MAHINDRA BANK	은행	372,365	58.3

주: 순서는 '24.9.27 종가 기준 시가총액 순  
 자료 : 봄베이증권거래소(BSE, Bombay Stock Exchange)]

### 〈현대차 인도 기업공개(IPO), '24.10.22 인도 증시 상장〉

- '24.10.22 인도 증시 상장식 개최, 전체 공모 금액 약 4조 5천억 원으로, 현지 자금 조달 통해 인도 자동차 시장 1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 취할 계획
  - (공장 신설)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 위치한 GM 공장을 인수하여 20만 대 이상 생산 규모 확보 예정 (타밀나두주 82만 대 + 마하라슈트라주 20만 대 합산하여 100만 대 생산체제 구축)
  - (전기차) 타밀나두주와 10년간 2,000억 루피(약 3.2조 원) 규모의 사업 확장 MOU를 체결하고 연간 18만 대의 배터리 팩 공장을 첸나이 공장 내 건설 중
- 공모 가격은 1,960루피(약 32,000원)로 책정, 주식 배정 청약 마감 결과 주식 수의 2.39배 청약이 몰림
  - 인도법인 주식 8억 1,254만 주 가운데 1억 4,219만 주(17.5%)를 구주 매출로 처분
  - 인도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IPO이며, 외국계 완성차 기업으로서는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인도 증시 사상 두 번째이며, 현대차 해외 자회사로서는 첫 번째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 □ 인도 증시의 상승은 인도 경제의 고속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

- **인구학적 배당, 강력한 인프라 추진, 제조업의 성장, 산업 친화적 정책, 재생에너지 용량 증가 등이 인도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 (JP모건)**
  - 인도의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인 IT·건설업 기업, 주력 제조업인 정유·자동차·제약 기업의 견조한 성장세
  - 인도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따른 급격한 에너지 수요로 에너지(석유, 가스), 전력 발전 기업이 성장, 인프라 개발을 위한 건설·토목 기업도 공격적 확장
  - 중산층 성장 및 소비 규모 확대,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금융(은행, 보험), 내수(통신,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띈
- **높은 경제성장률, 중산층 성장에 따른 내수 활성화 등에 따라 글로벌 자금 유입과 내국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인도 증시가 우상향 중**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도의 개인 투자자, '24.8월 개인 투자 등록자 수 1억 명 돌파 ('20.3월 3,100만 명 → '22.3월 5,940만 명 → '24.8월 1억 명)
  - 최근 한국에서도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ETF 상품을 출시하며 간접적으로 인도 증시에 투자가 가능해짐
    - \* ETF(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를 뜻하며,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

### 〈인도 정부, FPI\* → FDI 전환 간소화 위해 외환관리법 개정 추진〉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보유한 기업 지분이 10%를 초과할 경우 이를 FDI로 전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환관리법(FEMA) 개정 추진
-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인도 기업에 대한 지분이 10%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보고 요건, 모호한 세금 규정 등을 해결하려는 의도
-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FPI(Foreign Portfolio Investment) : 인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수동적으로 보유하는 투자로 정의,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FPI로 분류
- 현재 FEMA는 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FDI 규정은 여러 분야에서 최대 100%까지의 투자를 허용
- 단, 해외 투자자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FPI로 등록 후 투자 허가(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파생 계약 상품 등에 투자가 가능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 나. Make in India의 고도화

□ 인도 정부,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전기차·모바일·의료기기·이차전지·반도체 등 14대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의 인도 투자 및 현지 생산 독려

\* 정부 지정 14개 품목에 한해 현지 생산시설 건설 및 약정한 목표(매출증가액·투자액·국내부가가치율) 달성 시 현금성 인센티브 지급

• 기존 철강·화학·제약·가전 위주의 제조업에서 모바일·전기차·반도체 등으로 Make In India 산업이 다변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음

- 글로벌 기업의 對인도 투자 현황 : 전기차·이차전지

회사명	내용
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2년까지 3조 2,000억 원 투자해 연간 17만 8,000개의 전기차 배터리 팩을 조립하는 공장 건설 예정</li> <li>• 탈레가온의 옛 GM 공장의 자산 인수 완료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9,600억 원 투자 예정</li> <li>• 인도 법인의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도의 전동화 전환 투자에 활용</li> </ul>
마루티스즈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전기차 출시와 함께 25,000개 충전소 설치 계획 발표</li> <li>• 향후 6~7년 동안 6종의 전기차 발표 예정</li> <li>• SUV인 Fronx 1,600대를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 ('24.8.14)</li> <li>• 2016년에 출시된 Baleno에 이은 두 번째 일본 수출 모델</li> </ul>
토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하라슈트라에 24억 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설립 예정</li> <li>• 약 24.4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연간 40만 대의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할 계획</li> <li>• 직접 8,000개, 간접 8,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li> </ul>
폭스바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힌드라-폭스바겐 그룹 JV 설립 추진하여 배터리 구동 SUV 생산</li> <li>• 기술 및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는 50:50 JV 설립 위한 논의</li> </ul>
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첸나이로의 복귀 가능성 검토 중</li> <li>• 복귀 시 인도를 전기차 수출 허브로 검토 예정</li> </ul>
메르세데스 벤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기차를 인도 현지에서 조립할 계획</li> <li>• EQS SUV 580 현지 조립을 통해 보다 더 가격경쟁력 확보 예정</li> <li>• 미국을 제외하고 위 EQS SUV 모델을 해외에서 조립하는 유일한 케이스</li> </ul>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화학전지(ACC)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10GW 추가 입찰</li> <li>• 2022년 1차 입찰에서 수주한 5GWh를 포함하여 총 15GWh의 케파를 확보</li> <li>• 구자라트주의 Jamnagar에 30GWh 규모의 배터리 제조시설을 건설 중</li> </ul>
폭스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사업부 설립 계획 발표</li> </ul>

- 글로벌 기업의 對인도 투자 현황 : 모바일 (스마트폰)

회사명	내용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자, 인도 보타폰에 1조 통신장비 공급 예정</li> <li>• 인도 노이다 지역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 중이고, 첸나이에서 가전과 TV를 생산 중</li> <li>• 중저가형 A나 M시리즈 스마트폰 생산량이 대다수였으나, 폴드, 플립, S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물량 확대 예정</li> </ul>
애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타와 손잡고 타밀나두에 4번째 아이폰 조립 공장 설립 예정</li> <li>• 중국에서 인도로 신속히 공급망을 전환하면서, 인도의 애플 제품 글로벌 생산 기여도가 2023년 7%에서 2024년 14%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ul>
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글은 인도 생산라인에서 '픽셀 8' 기기의 출하를 개시</li> <li>• 픽셀 8은 대만 폭스콘의 출자 자회사인 Wow Tech가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li> </ul>
폭스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밀나두주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모듈 조립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의 투자를 검토</li> <li>• 위 제품을 아이폰에 공급 예정이며 페가트론, 타타 일렉트로닉스에도 납품할 예정</li> </ul>

- 글로벌 기업의 對인도 투자 현황 : 반도체

회사명	내용
폭스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CL-Foxconn 합작 투자(JV) 통해 OSAT(반도체 조립, 패키징 및 테스트) 시설 건설 중</li> </ul>
Applied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타밀나두주에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 고려</li> <li>• 첸나이에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첨단 AI 기술 개발 센터 설립 검토</li> </ul>
아날로그 디바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날로그디바이스(ADI, Analog Devices Inc.)는 타타그룹과 잠재적인 협력 제조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li> </ul>
글로벌 파운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카타에 GF Kolkata Power Center를 설립 예정</li> <li>• 인도반도체미션(ISM)의 지원과 Bharat Semi, 3rdi Tech, 미국 우주군 (US Space Force) 간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활성화될 예정</li> </ul>
PS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MC는 타타 일렉트로닉스와 인도 최초 반도체 펌을 건설 중</li> <li>• PSMC는 광범위한 기술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기술을 이전할 계획</li> </ul>

□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핵심 정책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의 수혜를 받은 'Made In India 스마트폰', 인도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등극

- 인도, 스마트폰 수출에 힘입어 FY25 1분기(2024년 4~6월) 기준, 전자제품이 엔지니어링 제품, 석유제품에 이어 3대 수출 품목으로 등극
  - FY25 1분기 동안 스마트폰 수출액이 4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전자제품 수출의 약 57%를 차지 (이 중 아이폰 수출이 35억 달러에 달함)
  - 애플은 인도에서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맥스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수출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애플,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수혜를 받는 폭스콘, 페가트론, 위스트론(일부 타타일렉트로닉스 물량) 등 3개 벤더를 통해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 중
  - 이들 공급업체는 2024/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89억 달러 상당의 아이폰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로 유럽, 중동, 미국으로 수출 중
  - 일부 기업의 경우 생산 연계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2024/25 회계연도 목표치의 약 50%를 첫 5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파악됨 (현지 언론)

□ 인도 제조업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원자재·중간재·부품의 현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제조업의 친환경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인도 내 부품 현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부품 기업은 수출의 양적 확대가 아닌 현지화를 고려한 진입 검토 필요
  - 기존에 수입 의존했던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 자동차 부품 산업 전반에서 인도 현지 기업들이 수입 의존도 탈피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모터 제어기,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전기차 충전기 등에 있어 향후 신속한 현지화가 예상됨
-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대체 연료(CNG, 전기차, 하이브리드) 비중 확대 중\*
  - (승용차) 전기차의 경우, 최근 5년간 0.1만 대(FY20) → 8만 대(FY24)로 판매가 크게 증가 중이며, FY29에는 59만 대 수준에 달할 전망
  - (이륜차) 전기 이륜차는 FY24에 이미 100만 대 가까이 판매되었으며, FY29에는 67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다. IT 소프트웨어로 뜬 인도, 반도체 제조 산업에도 진출

### □ 우수한 IT·반도체 설계 인력을 보유함에도 사실상 전무한 인도 반도체 제조 산업

- 인도는 훌륭한 반도체 설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팹리스 기업이 인도에 R&D, 엔지니어링 센터 형태로 진출
  - 인도 현지에 다수의 VLSI(초고밀도집적회로) 설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설계 분야 인력의 약 20%가 인도인인 것으로 추정
  - 글로벌 반도체 기업(TI, 브로드컴, 인텔, 퀄컴, 웨스턴 디지털, 삼성, 화웨이) R&D 센터가 인도에 진출해 있어, IP(지적재산권), SOC(시스템온칩) 설계 등에 접근 용이
- 인도 전자통신기술부(MeitY), '22.12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투자 기업에 100억 달러 규모 자금 지원 정책 SEMICON INDIA\* 정책 발표
  - 코로나19가 촉발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 인도는 2021~2022년 스마트폰, 자동차 생산 차질을 경험하고, 반도체 제조 산업을 적극 육성
  - 미래 산업 핵심 부품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주정부 보조금 합산 시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 도입

#### 〈SEMICON INDIA 정책 주요 내용〉

- 공식 명칭은 Modified Programme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 Fab Ecosystem, 담당 부처는 전자정보기술부(MeitY)이며 인센티브 규모는 약 100억 달러
  - 반도체 공장과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 시 인도 중앙정부에서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방정부에서 최대 25%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R&D에도 2.5%의 보조금을 지원
- 반도체 팹, 디스플레이 팹, 설계,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센티브 정책
  - ①인도 반도체 팹 설립 ②인도 디스플레이 팹 설립 ③복합 반도체/실리콘 포토닉스/센서 팹/디스크리트 반도체 팹 및 반도체 조립, 테스트, 마킹 및 패키징(ATMP) 설립 ④반도체 디자인(설계) 연계 지원(Design Linked Incentive, DLI)
- 담당 정부 부처
  - 전자정보통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
  - 인도 반도체 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 ISM) (반도체 정책 실행 총괄)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 전폭적인 정부 지원에 힘입어 태동하는 인도 반도체 제조 산업

• '24.10월 기준, 인도 내에 상업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FAB은 사실상 없지만, '25년 초부터 마이크론이 구자라트 사난드 반도체 조립·테스트공장 가동 예정

- 이 외에 TEPL-PSMC 파운드리(구자라트 돌레라), TSAT OSAT(아삼 모리가운) 등 3개 프로젝트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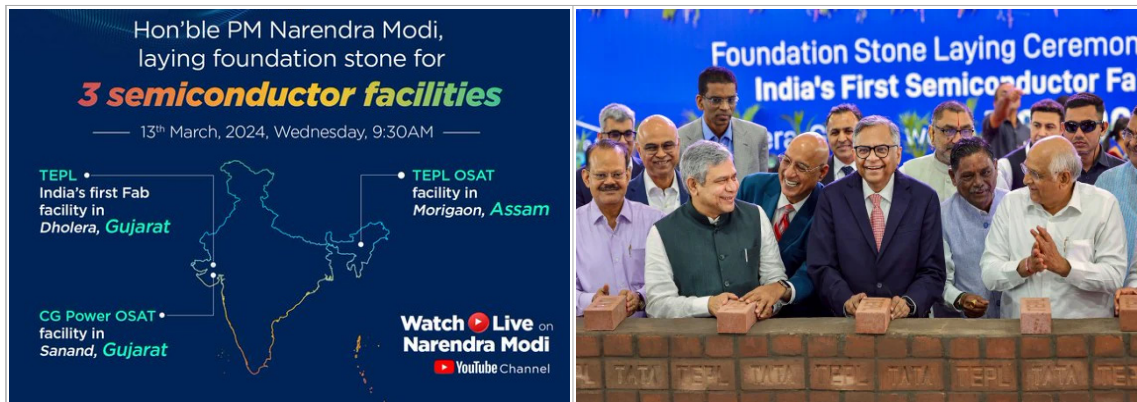
\* TEPL : Tata Electronics Private Limited, 타타 일렉트로닉스

\* PSMC : Powerchip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rporation, 대만 파운드리 기업

\* TSAT : Tata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Pvt Ltd, 타타그룹 산하 패키징 전문업체

\* OSAT :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외주

〈'24.3월 인도 정부서 발표한 반도체 공장 건설 3개 프로젝트〉



자료: 나렌드라 모디 총리 트위터, India Express, PTI Photo

□ 인도 반도체 공장 건설 현황

〈인도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현황〉

기업명 (국적)	위치	반도체 공정	생산제품	보유기술	투자계획
마이크론(미국)	구자라트주 사난드	EDS·패키징	DRAM, NAND	ATMP	27.5억 달러
(JV) CG POWER(인도)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일본)-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태국)		패키징	전력반도체	OSAT	10.0억 달러
(JV) TEPL(인도) -PSMC(대만)	구자라트주 돌레라	파운드리	전기차, 통신, 방위산업용 반도체 (28nm)	파운드리	110.0억 달러
TSAT(인도)	아삼주 모리가운	패키징	자동차, 가전용 반도체	ATMP	32.6억 달러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 • 마이크론(미국)

- '23년 구자라트 사난드에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공장 설립 계획 발표했으며, 현재 건설이 진행 중으로 '25년 초 첫 반도체 칩 생산 예정
  - \* 인도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 세계 반도체 수요 대비 매우 작은 수준으로 생산제품 중 상당 부분 수출 예정 (마이크론 인도법인장 Anand Ramamoorthy)
- 사난드 공장에서 제조되는 칩은 주로 데이터센터, 스마트폰, 노트북, 사물인터넷(IoT) 기기, 자동차 산업에 공급될 예정
  - \* 투자액은 27억 5천만 달러로, 이 중 8억 2,500만 달러를 마이크론이 부담하고 그 외 금액은 인도 중앙정부 및 구자라트주정부서 부담 예정

### • CG POWER(인도)-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일본)-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태국)

- 구자라트주 사난드에 아웃소싱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OSAT) 시설 건설 중, 가동 시 전력반도체향 칩 생산(하루 1,500만 개 규모) 예정
- 일본 르네사스社 및 마이크로社서 레거시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기술 제공

### • TEPL(인도)-PSMC(대만)

- 인도 대기업 타타그룹 산하 타타일렉트로닉스(TEPL)는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PSMC와 구자라트 돌레라에 반도체 공장 건설 발표
- 2026년 말부터 반도체 생산이 개시될 예정으로, 초기 생산 능력은 웨이퍼 월 50,000장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월 3,000만 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 • TSAT(인도)

-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TSAT는 아삼주 모리가온에 자동차·통신·가전용 반도체 생산 위한 공장 건설
- 실제 반도체 상업 생산은 2026년 말부터 개시될 예정, 아삼주는 인도 북동부에 위치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움

#### 〈우리 기업의 인도 반도체 생산공장 협력 현황〉

- [공장 설립] 심텍, 마이크론과 동반 진출 위해 인도 구자라트에 반도체·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 생산공장 설립 발표 ('24.1월)
- [R&D 센터] 삼성전자, 인도 반도체 연구소 SSIR 확장 개소 및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연구개발 조직 신설 ('24.2월)
- [공장 설립] 에이팩트, 인도 후공정 업체 ASIP와 합작 투자하여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반도체 OSAT·ATMP 공장 건설 발표 ('24.2월)

자료: 언론 종합

## 라. 갈 길 바쁜 인도, 발목 잡는 제조업·도시 인프라

### □ 제조업 가동률을 낮추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전력·수도 등 인프라 미흡

#### • 인도 정부의 인프라 부흥 계획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장에 잦은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수질 문제로 미세 공정 제품 생산 불가 등 제조업 인프라 미흡

- 이 외에도 미흡한 배수시설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도로 침수, 비포장도로·조악한 도로 상태 등으로 발생하는 물류 비용 및 자연 사태는 여전한 애로

- 정전 및 수질 문제로 일부 기업의 경우 인도 내 투자 계획 재검토 및 축소

\* 특히 예고 없는 잦은 정전·단수 등은 노이다, 푸네, 첸나이, 아난타푸르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제조시설 진출 지역의 공통 애로사항

#### 〈인도 진출 기업의 제조업 인프라 애로사항〉

기업명	내용
A사 (전기·전자)	• 그레이터노이다 공장 인근 용수료가 없어 시정에 해결 요청하였으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으며 신임 시장 면담 이후에도 묵묵부답
B사 (자동차)	• 푸네에 위치한 공장의 잦은 정전으로 인해 손실 발생 중이나, 입주 공단에서 당초 약속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 시설 공사 지연 중 • 생산과정 중 용광로에 있는 동안 정전 발생 시 해당 부품 전량 폐기 및 재가동에 따른 손실 발생
C사 (전기·전자)	• 잦은 정전으로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고, 동절기(11~2월)에는 대기오염을 이유로 디젤 발전기 사용을 금지
D사 (전기·전자)	• 산업단지의 잦은 정전(6개월 내 100시간 이상) 및 제품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수질로 인도 생산 규모 축소 또는 재검토 예정
E사 (자동차)	• 과거 대비 전력 인프라는 다소 나아졌으나, 지난 6년간 정전이 잦았으며, 당초 주정부에서 약속한 전기 인프라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 • 특히 여름철 전력난을 이유로 주정부서 각 협력업체에 2개월간 전력 사용량을 기존의 50%로 줄일 것을 요구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벌금 부과 • 용수의 경우 인근 저수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 당초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 지하수 이용 등 자구책 마련
F사 (자동차)	• 미흡한 정주 여건,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에는 주변 편의시설(병원, 학교 등) 미비 (안드라프라데시)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 '24.7월, 2024~25 인도 연방 예산안 발표 시 인프라 분야에 GDP의 3.4%에 달하는 약 1,340억 달러를 배정하며 전폭적인 인프라 개발 진행 중

기업명	내용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의 3.4%에 달하는 11.11조 루피(약 1,340억 달러)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 배정</li> <li>• 주(州)정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5조 루피(약 180억 달러) 규모의 무이자 대출 예산 할당</li> <li>• VGF(Viability Gap Funding: 정부가 건설 및 운영보조금 등 금융 지원) 통해 민간 인프라 개발 지원</li> </ul>
도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5년간 10억 루피(약 1,200만 달러)를 투자해 빈민과 중산층 가정을 위한 도시 주택 문제 해결</li> <li>• 10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상수도, 하수 처리 및 고형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와 서비스 추진 예정</li> </ul>
에너지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저장을 위한 Pumped Storage 정책 개발</li> <li>• 민간 부문 협업을 통한 소형 및 모듈형 원자로 개발 착수</li> <li>• 60개 클러스터 대상 재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효율화 목표</li> </ul>
인적 자원 개발 및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600억 루피(약 3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도로 연결 프로젝트 개발</li> <li>• 전력 프로젝트: 2,140억 루피(약 26억 달러)의 비용 소요 예상</li> <li>• 비하르주에 신규 공항, 의과대학, 스포츠 인프라 건설</li> <li>• 산업 회랑 등 필수 인프라에 물, 전력, 철도, 도로 분야 자금 지원</li> </ul>

-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207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500GW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기준 신재생 에너지원의 총 설치 용량은 195.01GW

### 〈신재생에너지원별 현황〉

에너지원	내용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는 막대한 태양 에너지 잠재력 보유, 인도 국토 전역의 태양광 잠재 발전량이 연간 약 5,000조kWh 규모로 파악됨</li> <li>• 막대한 태양광 에너지 개발 시 인도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전력, 냉난방 에너지 수요 충족 가능하며,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태양광 개발은 중요</li> <li>• 뉴델리 시의회는 관할 구역 내 여러 정부 및 공공 건물에 그리드 연결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여 태양광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진행 중, 현재 뉴델리 내 28개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 중</li> </ul>
그린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500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 목표 수립, 달성 위해 2030년까지 전기분해 용량을 15GW로 늘릴 예정</li> <li>• 2024년 1월, 국가 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에 총 8개 기업이 수전해 제조(총 1,500MW) 구축 계약 체결</li> </ul>

자료 : KOTRA 뉴델리 무역관

□ 14억 인구의 도시 쏠림 가속화에 따른 주택 문제, 도시 인프라 부족, 환경오염,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 전개

• 지역개발(지역간 개발 격차 해소), 교통(도로망, 철도망, 인프라), 수처리(하수정화처리시설 부족, 불안정한 상수도 공급), 환경(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전 분야 개발 필요

- 인도의 도시 개발은 선진국의 스마트시티와 달리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전반적인 기초 인프라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초점

\* 인도의 도시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어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들이 인구의 40%를 수용하고 GDP에 75%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미흡한 배수시설로 인한 홍수 및 교통 불편 (몬순 시즌)〉



자료: KBS 뉴스

• 인도 정부, 지속 가능한 도시 주거 환경 구축하고자 스마트시티 미션(Smart City Mission) 정책 전개

- 상·하수도 처리시설, 대중교통 부족, 빈민가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초 인프라가 우수한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

분야	내용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인도 정부는 청정 연료 기반의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전기버스 프로그램 NEBP* 도입</li> <li>* National Electric Bus Program : 2030년까지 전국에 50,000대의 전기버스를 배치할 계획</li> <li>• 2023년 8월에는 PPP를 통해 10,000대의 전기버스를 배치하는 “PM-eBus Sewa Scheme”을 출범</li> </ul>
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RUT 2.0) 모든 가정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하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빈곤층 삶의 질 개선 목표</li> </ul>
도로 IT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도로교통부는 2022년 6월, 전자 발권 및 요금 징수 시스템 도입을 위한 도로 시스템 강화 지침 발표를 위한 신규 지침 발표</li> </ul>
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MS(Intelligent Traffic Management System)는 AI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평가하는 기술로, 특히 델리 주정부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ITMS 시스템 구축 중</li> <li>•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푸네 고속도로에 교통 위반 감지 위한 CCTV 카메라 설치, 모든 요금소에 자동 번호판 인식 기능 설치 중</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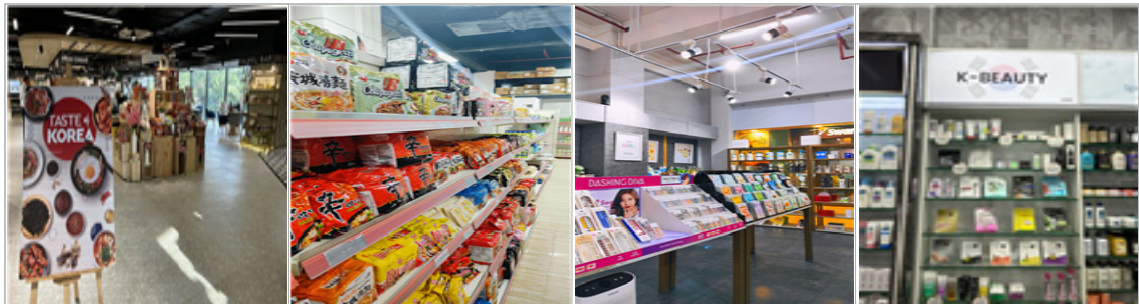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 마.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본격적인 한류 확산

□ 인도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류를 반영한 한국 소비재 판매가 확대되고 품목이 다변화되어가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스마트폰 보급, 저렴한 데이터 사용료, 전자 결제 활성화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인도 소비재 시장의 새로운 관문으로 등극
  - 유통시장 디지털화·대형화 동시 진행 중이며, 중산층 확산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중·고가 뷰티·패션, 식료품 등 소비재 수요 증가세
    - \* 아마존 인디아, 플립카트, 지오마트, 클릭·빅바스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점 각축
- 한류로 인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가 비교적 접근이 쉬운 식품·화장품 제품군을 중심으로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여성 경제참여율 증가, 도시화에 따른 생활 방식의 변화로 한국의 라면과 같은 간편 조리식과 인스턴트 제품군은 꾸준히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
  - 화장품의 경우 한류를 경험한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 시작과 구매력 향상으로 스킨케어 제품을 필두로 한 한국산 프리미엄 화장품 제품군의 매출 확대 전망
    - \* 인도는 인구의 40%(약 5억 명)가 25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이루어진 잠재구매력이 높은 경제
- 주요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류 트렌드를 반영한 수입·취급 품목 다변화 진행
  - 소비자 수요 대응을 위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망에서는 K-Food, K-Beauty 전문 매대 설치 및 쿨링 클래스 등의 판촉행사 진행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Amazon, Food square, Tira 등의 유통망은 한국산 제품의 품목 다양화를 위해 한국 제품 취급 전문 벤더를 고용하는 등 수입에 집중
  - 라면, 과자 등 K-Food 주력 식품군을 넘어 주류에까지 관심 확대
    - \* 인도의 가파른 주류시장 성장세에 한류가 더해지면서 인도에서 익숙지 않은 소주, 막걸리 등 한국산 주류를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바이어의 수요 시작

### 〈인도 현지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식품·화장품〉



자료: KOTRA 뉴델리, 뭄바이 무역관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24.6월 인도 18대 총선 결과, 여권의 의석수는 감소하였으나 모디 3연임 성공
- ※ (경제) 제조업 확대 통한 경제성장 지속, 무역수지 적자 및 루피화 가치 하락 지속
- ※ (산업) 자동차·전기전자·철강·화학 등 주력 산업 성장,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전략화
- ※ (정책·규제) 탄소 중립·전기차 전환 정책, 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환경 규제 강화

### 가. 정치 환경

□ '24.6월 인도 제18대 하원의원 선거 결과, 과거 대비 여권의 의석수는 감소하였으나 모디 총리 3연임 성공

- 인도인민당(BJP)이 이끄는 여권 연합(NDA)이 전체 의석의 54.0%(293석) 확보, 연정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 3연임
  - 인도인민당은 총 240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에는 실패했으며, 인도국민회의(INC)의 야권 연합(INDIA)은 234석을 획득
- (평가) 인도의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 확대·실업률 문제 및 힌두 민족주의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유권자 지지 획득
  - '23년 인도 상위 1%가 인도 전체 자산의 40.1%를 차지\*했으며, 구직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도인은 53%('22) → 44%('23)로 감소 (출처: WIL, Gallup)
  - 모디 총리의 시민권 개정법(CAA, Citizenship Amendment Act) 시행 결정, 무슬림 유권자에 대한 혐오 발언 논란\* 등 배타적인 힌두 민족주의 기조 역시 지지 하락 요인

□ 모디 총리의 3연임 성공으로 기존 정책 대부분 지속될 전망이나 속도 조절 예상

- '14년 집권 이후 모디 총리는 여권 연합과 형식상 연정을 이어왔으나, 신정부에서는 소수 정당과 연대가 불가피해 정책 추진 시 변수로 작용 가능
- (영향)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구축·개선, 제조업 발전 등 친기업·경제발전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인도인민당이 총선 공약을 통해 인도 내 인프라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철도·공항 산업회랑 개발 프로젝트 수주 유망
- 'Make in India' 기조와 자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는 향후 우리 진출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 가능

### 〈'24 인도인민당 주요 총선 공약〉

분야	주요 내용
경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년까지 인도 경제 5조 달러 규모로 성장 목표</li> <li>- (인프라) 북부·중부·남부에 고속철도 노선 신설, 5G 네트워크 확장·6G 개발</li> <li>- (투자 유치) 직·간접세제 간소화 및 법인세 인하로 친기업 환경 조성</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취업 촉진 및 교육·기술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li> <li>- 공과대학, 경영연구소, 의과대학 등 전문 교육 기관 수 확대</li> <li>-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고등 교육 기관에 인큐베이션 센터 설립</li> </ul>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세 이상 인도인 대상으로 무료 건강 보험 프로그램 확대</li> <li>• 3,000만 가구 무료 주택 제공, '29년까지 8억 인도인 대상 무료 곡물 배급</li> <li>• 여성 전용 호스텔·탁아소 확대를 통해 여성 노동력 참여 독려</li> </ul>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개·저온저장시설, 농산물 등급·분류 장치 등 농업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진행</li> <li>•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 지속(現 연간 6,000루피) 및 농작물 최소 지원 가격 인상</li> </ul>

## 나. 경제 환경

□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5대 경제대국 인도, '14년 이후 7%대 고성장 지속 중으로 '23년 8.2%, '24년 7.0%(e) 성장하여 세계 경제 新엔진 자리매김

\* '24년 인도 GDP 약 3.94조 달러, '27년 일본·독일 제치고 3대 경제대국 등극 전망(IMF, '24.7월)

□ 그동안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은 경제 확대에 신형 경제권으로 안착

- 모디 총리('14년 취임, '19년·'24년 연임) 취임 후 경제개혁(간접세 통합, 노동법 간소화) 및 제조업 육성(FDI 기반 제조업·인프라 구축) 통한 견고한 경제 성장

\* 인도 실질GDP 성장률(%) : 9.7('21) → 7.0('22) → 8.2('23) → 7.0(e)('24) → 6.5(e)('25)

\* 인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 56.4('24.3월) → 58.7(5월) → 57.7(7월) → 57.5(9월)

- 인구·경제 규모 대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높은 실업률 지속, 산업 발전에 따른 원유 및 원부자재 수입 확대에 무역수지 적자 지속

\* 인도 실업률(%) : 7.4('24.3월) → 8.1(4월) → 7.0(5월) → 9.2(6월) → 7.9(7월)

\* 인도 무역수지(억 달러) : -1,774.8('21) → -2,668.8('22) → -2,388.2('23) → -913.2('24.1~5월)

□ 안정적 물가 관리 위한 다소 높은 기본금리 유지, 투자 유치(FDI) 또한 회복세

- (물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인도 경제 특성상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 다만, '24년 1월 이후 3~6%대 안정적 물가 관리 중이나 기후변화, 폭염·폭우 등에 따른 식품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아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모니터링
  - \* 인도 CPI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 5.10('24.1월) → 4.85(3월) → 4.75(5월) → 3.54(7월) → 3.65(8월)
- (금리) 인도 중앙은행 RBI, '23년 2월 이후 정책 레포금리 6.50% 유지 중. 물가상승률 4%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다소 높은 금리 유지 중
  - 다만, '24.9월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인도 정책금리(기준금리) 변동 가능성 有 ('24.9월, 인도 현지 언론)
- (투자 유치) 인도의 對세계 FDI 유치는 장기적으로는 상승세이나, '20/'21년 596억 달러 최고치 경신 후 코로나 시기 단기 조정을 거쳐 '24년 반등 양상
  - '24/'25('24.4~6월) 투자 유치액은 16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
  - \* 인도의 FDI 투자 유치액(억 달러) : 587('21/'22) → 460('22/'23) → 444('23/'24) → 162('24/'25, '24.4~6월)
  - '00년 이후 對인도 누적 투자액 미국(667억 달러), 네덜란드(511억 달러), 일본(425억 달러), 영국(351억 달러), UAE(190억 달러), 독일(147억 달러) 순(모리셔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제외 시)

□ 2024년 세계 교역 제한적 회복, 인도 무역수지 적자 및 루피화 가치 하락 지속

- (교역) '22/'23년 최대 교역액 달성하였으나, 세계 교역량 감소에 따라 '23/'24년에는 교역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4년 들어 다시 회복세
  -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심화 중이나, '24.4~6월 기준 적자폭 다소 감소

〈최근 3개년 인도 수출입액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22년	2022/23년	2023/24년	2024/25년('24.4~6월)
수출액(증감)	422,004(+44.62%)	450,958(+6.86%)	437,072(△3.10%)	143,968(+4.03%)
수입액(증감)	613,052(+55.42%)	714,042(+16.47%)	678,215(△5.27%)	230,966(+8.16%)
무역수지	△191,048	△264,899	△241,143	△86,998

자료: 인도 상무부

- (환율) 지속적 무역수지 적자 등에 따라 루피/달러 환율 마지노선인 80선 돌파하며 위협요인으로 작용, '24년 5월 USD 1달러당 INR 84.2루피까지 하락

〈2020~2024년 USD 1달러당 인도 루피(INR) 환율〉



자료: Forbes Advisor

## 다. 산업 환경

□ (산업 개관)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도모, 8대 핵심 산업군 외 자동차, 전기전자 등을 투자 유치 중점 산업으로 지정하여 제조업 육성

-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농업, 서비스업에서 벗어나 제조업 육성 노력

- 1991년 경제 개방 당시 30%에 달했던 농업의 GDP 기여율은 '24년 14.3%로 감소하였으며, 농업의 감소분이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이어짐
- 기존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제조업의 GDP 기여율을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Make in India' 정책 추진 중이나 목표 달성 무기한 지연
  - \* 제조업 GDP 기여율(% , EIU) : '20년 18.3 → '21년 18.4 → '22년 16.9 → '24년 17.5(전망)
- 최근 공급망 재편 요구로 인해 인도는 Self-Reliant India 정책을 통해 지속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자국내 제조업 육성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음

〈인도의 산업구조 (GDP 중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산업 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f)	2025(f)
농업	16.4	15.6	15.1	14.9	14.3	14.2
제조업	18.3	18.4	16.9	17.3	17.5	17.5
서비스업	53.0	53.0	54.2	54.6	56.1	56.1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8대 핵심 산업군(Core Industries)과 주요 산업

- 인도 정부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화학, 비료, 철, 시멘트, 전력 산업 분야를 8대 핵심 산업군으로 지정
- 인도 주력 산업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 전기전자, 섬유 등이 있으며, 자동차와 전기전자, 통신의 경우 FDI 유치 기반의 주력 육성 산업
- 이 외에 Make In India 통해 투자 유치 중점 제조업 지정하여 육성

〈Make in India 육성 산업〉

구분	정부 지정 산업
제조업 (15)	①항공 ②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③제약 및 의료기기 ④바이오 기술 ⑤자본재 ⑥섬유 및 의류 ⑦화학 및 석유화학 ⑧전자 설계 및 제조 ⑨가죽 및 신발 ⑩식품 가공 ⑪보석 및 주얼리 ⑫물류 ⑬철도 ⑭건설 ⑮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 (12)	①IT 서비스(IT 및 ITeS) ②관광 서비스 ③의료관광 ④운송 및 물류 서비스 ⑤회계 및 재무 서비스 ⑥시청각 서비스 ⑦법률 서비스 ⑧커뮤니케이션 서비스 ⑨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⑩환경 서비스 ⑪금융 서비스 ⑫교육 서비스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 주요 산업별 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인도, '23년 약 58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 세계 4위 자동차 생산국

- '20년 339만 대, '21년 440만 대, '22년 546만 대, '23년 585만 대 생산

〈2023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순위	국가명	2022년 생산량	2023년 생산량
1	중국	27,020,000	30,160,966
2	미국	10,020,000	10,611,555
3	일본	7,830,000	8,997,440
4	인도	5,460,000	5,851,507
5	한국	3,757,065	4,243,597
6	독일	3,740,000	4,109,371
7	멕시코	3,470,000	4,002,047
세계 총 생산		84,970,988	93,546,599

주: 승용차(상용차 포함) 기준  
자료: OICA

- 전 세계 주요 다국적 메이커들이 현지 업체들과 경쟁하는 각축장

- 이륜차 및 삼륜차 시장은 히어로, 바자즈, 혼다, 피아지오, 마힌드라, TVS, 아틀 등 현지 기업 및 일본 기업 등이 상위의 점유율을 차지
- 상용차 부문의 경우 타타, 마힌드라, 아속 레이랜드, 에이처 등 인도의 4대 기업이 판매의 90% 이상 점유
- 2023년 인도 승용차 시장 점유율 마루티스즈키(41.6%), 현대차(14.7%), 타타모터스(13.4%), 마힌드라(10.6%), 기아(6.2%), 토요타(5.4%), 혼다(2.1%) 순 (출처: Statista)

- 완성차 업체 설비 투자 증설

- (마루티스즈키) 2023년 판매량은 인도 내수 약 196만 대, 수출 약 26만 대. 하리아나·구자라트 공장에 이어 5번째 공장 신설하여 연간 100만 대 생산능력 추가 확보 예정
- (현대차) GM 탈레가온 공장 합병으로 연간 100만 대 생산체제 구축 중이며, '25년부터 양산에 돌입 단계적 설비 개선 통해 생산능력 확대 추진
- (르노인디아) 첸나이서 연 48만 대 규모 생산법인 운영 중이며, 4개 모델 20만 대 증산 위해 자본재 및 자동차 부품 조달 방안 모색 중

## □ 주요 산업별 현황 - 전기전자

- (전기전자) OTT 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 새로운 부문 수요와 성장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등세에 힘입어 '25년 스마트폰 시장 지속 성장 예정

- 인도 스마트폰 시장, 2024년 상반기 6,900만 대 출하되어 전년 대비 7% 증가
  - \* 2024년 2분기 기준, 전체 출하량의 77%가 5G 스마트폰 (출처: Canalys)
- 주요 성장 요인은 저가형 5G 스마트폰의 도입과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제공하며 경쟁 촉발
- '24.9월 기준,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의 약 17%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계 보급형 스마트폰 브랜드 및 애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과의 치열한 경쟁 중
  - \* 2024년 2분기 기준 인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 샤오미가 18.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비보 18%, 삼성 17%, 리얼미 12%, 오포 11% (출처: TechInsights, '24.7.31)
- 원격 수업, 재택근무, 디지털 게임 사용 증가로 스마트폰 수요 크게 증가. 스마트폰 사용자 역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으로 '24.9월 기준 약 6.6억 명 사용
  - \*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9억 7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저렴한 데이터 요금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농촌지역 성장성 高

## □ 주요 산업별 현황 - 철강

- **(철강) 인도 제조업 핵심 후방산업인 인도 정부의 적극적 산업 활성화 시도로 2023년 세계 2위 조강 생산국 (출처: 세계철강협회, The World Steel Association)**
  - 2023년 전 세계 조강(Crude Steel) 생산량은 18.9억 톤으로, 중국(1,019백만 톤), 인도(140백만 톤), 일본(87백만 톤), 미국(81백만 톤), 러시아(76백만 톤), 한국(66백만 톤) 순
  - 2023년 조강 생산량 기준, 인도는 1.41억 톤을 생산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조강 생산국 지위 유지
    - \* 인도 정부, 철강 생산량 2030년까지 3억 톤으로 증대 계획
  - 2023년 조강 생산량 기준 전 세계 상위 50개 기업 중 인도 기업 4개 포함
    - \* Tata Steel(2,950만 톤), JSW Steel(2,615만 톤), SAIL(1,918만 톤), Jindal Steel and Power(790만 톤)

## □ 주요 산업별 현황 - 화학

- **(규모) 인도 화학·석유화학 시장 규모는 2022년 2,200억 달러 달성, 2025년 3,000억 달러, 2040년까지 1조 달러 성장 전망**
  - \* 수출과 수입 규모에서도 각각 세계 11위와 6위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 거래 개척
- **(제품) 인도는 공급 규모 세계 6위(아시아 3위)의 거대 시장으로 석유화학, 특수화학, 농약, 비료, 폴리머 등 8만 개 이상의 제품 유통**
  - \* 전 세계적으로 인도는 3번째로 큰 폴리머 소비국이자 4번째로 큰 농약 생산국
- **(수요) 인프라·제조업 육성, 거대 인구 및 소비력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재 판매 확대에 기존 제약이나 농업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페인트, 코팅, 자동차 산업 등의 특수화학물로 수요 확대 중**
  - \*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품목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인프라) 천연가스·원유 등 원자재 투입비용 증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화학제품 생산 인프라 현대화 구축에 한계 노출**
  - \* 열악한 생산 인프라로 인해 인도 현지 기업이 글로벌 제조업체 대비 우위 점하기 어려운 구조
- **(투자단지) 2007년 인도 정부 4개의 화학·석유화학산업 투자지역(PCPIR: 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investment region) 조성**
  - \* 4개 투자지역: Dahej(구자라트주), Vishakhapatnam-KaKinada(안드라프라데시주), Paradeep(오디샤주), Cuddalore-Nagapattinam(타밀나두주)
  - \* 독일 바스프, 미국 다우케미컬, 일본 미쓰이화학 등 글로벌 기업 구자라트 진출. 이 외에 릴라이언스(Reliance)와 피딜라이트(Pidilite) 등 인도 기업도 PCPIR에서 제품 생산 중
- **인도의 화학 산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며, 상위 10대 기업 중 9개 기업 생산공장이 구자라트에 소재**
  - \* 이 외에 인도 전역에 200개 국립 연구소 및 1,300개 R&D 센터 보유하여 화학 산업 육성

## □ 주요 산업별 현황 - 소비재 및 소비시장 트렌드

- **Amazon India, Flipkart, Jio Mart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도 소비재 시장의 새로운 관문**

\* 아마존 인디아(美 아마존), 플립카트(美 월마트), 지오마트(印 릴라이언스), 클릭·빅바스켓(印 타타) 등 글로벌 기업과 인도 자국 대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점 각축

- **인도 E-commerce(이커머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스마트폰 보급, 저렴한 데이터 사용료, 전자결제 활성화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

-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패션/의류, 식료품 위주 성장 중, 이 외에 Myntra(뷰티·패션), Shopsy(저가 제품), Nykaa(화장품) 등 플랫폼 활성화**

-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는 인도 우편번호 기준으로 약 10만 개 지역 중 2만 개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과 창고를 확보 중

-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를 통해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게 된 점도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기여한 주요 요인

## 라. 정책·규제 환경

□ (정책) Make in India 2.0 기반, 산업구조 개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자립 인도 (Self-Reliant India)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

- 인도 내 제조시설을 확대하고, 스스로 생산하는 Make in India 2.0 버전인 자주 인도 정책 발표('20.5.)
  - 5가지 항목(경제, 인프라, 시스템, 수요, 인구)을 중심으로 인도 내 제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으로, 2024/25 회계연도까지 1조5 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진행 중
  - '16년부터 단계별 제조업 육성 정책(PMP; Phased Manufacturing Program)을 통해 제조 시스템 강화 및 내수 가치 향상 노력
  -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투자 유치 및 현지 생산을 장려하여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급망 기지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목표
- 주 수입품(반도체부품·휴대폰부품 등) 현지 생산으로 수입 대체 산업화 도모
  - 전기차·전자제품 등 현지 생산·수출 시 수출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 활동 강화

□ (전기차 전환 정책)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달성 요구 △대도시의 극심한 대기오염 △원유 수입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도의 '전기차 전환' 확대

- 환경요인에 따른 전기차 수요 급증, 해당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는 등 '전기차 전환' 본격화
  - (규모) 전기차 보급 정책 및 완성차 업계의 신모델 출시를 통해 '30년 인도의 전기승용차 시장 규모는 약 100만~14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이륜·삼륜차 포함할 경우 1,380만~1,660만 대('22년, KOTRA 첸나이 무역관-Avalon Consulting)
  - (정책) '12년 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NEMMP)을 통한 초기 비전 수립 이후, FAME I('15년), FAME II('19년), PLI('20년) 등 정책을 통해 수요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등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 FAME : 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Hybrid and Electronic Vehicle

□ (ESG)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쓰레기 산으로 골머리를 앓던 인도는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부터 생산까지 금지하는 법안 발표

- (환경 규제)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 변화부는 '22.7.1일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제조·수입·유통·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 이에 따라 인도 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 식품 등에 사용되는 스틱류, 음료용 빨대, 포장재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 규제가 시행

### 〈'22년 7월 1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현황〉

분류	해당 제품 및 소비 부문
플라스틱 스틱	면봉, 풍선, 사탕,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되는 스틱
일회용품	젓가락, 손가락, 일회용 컵, 빨대, 식기류 등
포장용품	과자 포장지, 초청장, 담배 포장지 등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PVC 배너(현수막, 입간판 등)

자료: 인도 환경·산림 및 기후 변화부

- 엄격한 시행을 위해 감시 조직을 설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별도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추후 PE, PP 및 PVC 등 폴리머 시장 지속 관망 필요할 것
- 철강재 등 대량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두께 제한의 단계적 강화로 관련 기업들의 포장비용 부담 증가 예상
- 한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기존 고객들로부터 주문이 크게 증가하며 새로운 시장 국면을 맞이

• **(생산자책임제도) 인도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생산자책임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의무화**

-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2016년 PWM Rules 제정과 함께 처음 도입되었으나 2022년 2월 16일 PWM Rules 4차 개정에 따라 EPR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EPR 준수 의무화
-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자, 수입자, 브랜드 소유자는 ① CPCB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EPR 포털에 등록 ② 연간 계획서를 제출 ③ 계획서에 따라 재활용(Recycle)·재사용(Reuse)·폐기(End of Life Disposal)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거 및 관리 ④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화
-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제를 위반할 경우, 인도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제15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2. 시장 분석

- ※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 저렴한 인건비 및 영어구사 가능 인력 다수
- ※ 세계의 제조 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한 친기업 정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 미-중 갈등 반사이익 수혜, 인도를 중동, 아세안 수출기지로 활용 가능
- ※ 디지털화 통한 14억 인도 시장 통합 및 구매력 향상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 저렴한 인건비 및 영어 구사 가능 인력 다수

-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등극하였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처분 소득으로 거대 소비시장 형성**
  - '23년 4월, 유엔경제사회부(UN DESA,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 따르면 인도는 약 14억 2,575만 명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 \* 인도의 인구는 14.5억 명('24년), 16.8억 명('5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한국 통계청, '24.9월) ('24년 이후 전망치의 경우 UN 통계치가 없어 한국 통계청 수치로 대신)
  - 2024년 인도의 1인당 GDP는 2,730달러에 지나지 않으나, 중산층의 증가 및 총 가구소득의 증가로 소비 규모가 커지고 있음
- **노동 인력(15~64세)이 8.5억 명(총 인구의 63.6%)에 달하며, 이 중 50%가 27세 이하의 젊은 층이고, 0~14세 영유아 인구는 총 인구의 31.2%로 세계에서 5번째로 젊은 국가로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노동시장을 보유**
  - 부양인구에 비해 생산인구가 많아질 전망이며, 현재 인구구조 또한 피라미드형을 보여주고 있는 인상적인 형태, 소비와 생산의 향후 전망 낙관적
  - 매년 엔지니어 150만 명, MBA 졸업생 30만 명 배출하며, '24.9월 기준 117개 유니콘 스타트업을 보유한 국가로 우수한 이공계 노동력 및 혁신적 기업 성장 전망

#### □ 세계의 제조 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한 친기업 정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인도 정부는 제조업 진흥책, 친기업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
  - 'Make in India', 'Digital India',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지원 정책(PLI, RoDTEP) 등 친기업 지원 정책 추진으로 세계의 공장 지향
  - 간접세제 개혁 완료(통합간접세 도입, '17.7.1.), 노동법·토지취득법 완화 추진

• 도시화 진행 속 인프라 개선 및 인접국 간 주요 인프라 연계 확대 노력

-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고속도로, 철도, 전력, 수처리 시설 등
- 민관 합작 파트너십(PPP)을 통해 벵골만 연안국(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네팔 등) 간 고속도로 연결, 항만, 전력 거래, 국경 무역 촉진 노력 지속

□ 미-중 갈등 반사이익 수혜, 지정학적 위치상 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 아세안 등으로 수출 또는 진출할 수 있는 신흥국의 스프링보드이자 허브로 작용

• 미-중 갈등 등 글로벌 정치·경제적 생태계 변화로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시화되면서 인도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

- 특히, 인도는 '20.5월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유혈사태 발생 이후 중국산 앱 규제, 투자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 對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한 노력 전개 중
- 중국은 인도의 2위 교역국이자 1위 수입국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 외 국가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려는 기업들이 나타나며 인도 반사이익 수혜
  - \* '23년 인도 자동차 판매량 세계 3위(508만 대), 생산량 세계 4위(585만 대)
  - \* '23년 인도 스마트폰 1.46억 대 출하, 중국에 이은 세계 2대 스마트폰 시장 등극

□ 디지털화 통한 14억 인도 시장 통합 및 구매력 향상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간접세(GST) 통합으로 14억 인도시장 상당 부문 통합

- '24.9월 기준 약 550개 은행과 연결된 인도 UPI(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도입 통해 14억 디지털 결제 인프라 통합
  - \* 은행 계좌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 휴대폰 번호나 QR코드로 손쉽게 송금. Google pay, Paytm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휴대폰 번호 OTP 인증 시 즉시 사용
- 스마트폰 사용자 급등에 맞춰 생체 인식 기반 전자신분증인 아다르(Aadhaar) 카드를 대부분의 국민에게 발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손쉽게 은행 계좌 개설 가능

• 인도 중산층 확대 및 구매력 향상에 따른 소비재 판매 확대

- 현지 구매력 상승으로 웰빙 식료품, 중·고가 의류, 화장품, 가전제품 수요 증가, 한국 식품 수입 급증 중이나, 채식주의자 소비자 공략을 위한 상품 개발 필요
- 아마존 인디아·플립카트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도 시장의 새로운 관문으로 발돋움 중이며, 온라인 유통망 입점 시 전통 유통망 대비 낮은 비용으로 진입 용이
  - \* 이 외에 Myntra(뷰티·패션), Shopsy(저가 제품), Nykaa(화장품) 등 플랫폼 활성화

## 나. 교역

### □ 수출입 동향

- 2023/24년 기준,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하였으나 무역적자는 지속
  - (무역규모) 전년 대비 4.3% 감소한 1조 1,153억 달러(수출 -3.10%, 수입 -5.27%)
  - (무역수지) 수출액 대비 수입액 감소폭 확대로 무역적자 전년 대비 8.34% 감소

#### 〈인도 최근 3개년 수출입액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22년	2022/23년	2023/24년	2024/25년 (‘24.4~6월)
수출액 (증감)	422,004 (+44.62%)	450,958 (+6.86%)	437,072 (△3.10%)	143,968 (+4.03%)
수입액 (증감)	613,052 (+55.42%)	714,042 (+16.47%)	678,215 (△5.27%)	230,966 (+8.16%)
무역수지	△191,048	△264,899	△241,143	△86,998

자료: 인도 상무부

### □ 국가별 현황

- 2023/24년 기준, 주요 교역국은 ①미국 ②중국 ③UAE ④러시아 순
  - (수출)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수출 상위 25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
  - (수입)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수입 상위 25개국이 전체 수입의 약 83%를 차지

#### 〈인도의 5대 수출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수출			국가명	수입		
	2022/23	2023/24	2024/25 (‘24.4~6월)		2022/23	2023/24	2024/25 (‘24.4~6월)
미국	78,548	77,523	27,445	중국	98,506	101,736	35,852
UAE	31,609	35,625	11,454	러시아	46,213	61,159	23,778
네덜란드	21,621	22,369	9,081	UAE	53,232	48,026	19,687
중국	15,332	16,667	4,800	미국	50,864	42,195	15,239
싱가포르	11,992	14,414	4,725	사우디	42,035	31,416	9,515
한국(17)	6,654	6,416	1,919	한국(10)	21,227	21,135	6,863

주: 순위는 2024/25 회계연도(‘24.4월~‘24.6월) 기준

자료원: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 품목별 수출입

### • 2023/24년 인도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에너지(정유, 원유, 석탄), 다이아몬드, 금

- (5대 수출품) 석유제품(84,157백만 달러), 의약품(21,714백만 달러), 진주제품(18,925백만 달러), 통신기기(17,259백만 달러), 귀금속(13,310백만 달러)
- (5대 수입품) 원유(139,288백만 달러), 금(45,542백만 달러), 석유제품(39,445백만 달러), 석탄(38,882백만 달러), 전자제품(34,363백만 달러)

\* 석유제품은 인도의 최대 수출품인 반면 원유는 인도의 최대 수입품

## □ (공급망 - 자국 내 생산 육성을 위한 수입 규제) 인도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수입 규제 조치 활용

### • '23년 8월,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IT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발표하였으나, 수입량 급증 및 현지 업계 반발에 단순 수입 등록 절차로 완화

\* '24.9월 현재, 위 단순 수입 등록 절차는 '24.12.31일까지 연장되었음

- 현지 주요 언론, 해당 조치가 인도 PC, 노트북 시장 상위 점유업체인 HP, 델, 레노버,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인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자 한 조치로 추측
- Apple, Dell, HP 등 주요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인도 정보기술부(MeitY)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인도 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치 연기 요청

\* 수입을 위한 강제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없애는 대신 해당 업체가 수입 관리 시스템에 등록 필요

- 인도 정부, 약 21억 달러 규모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통해 IT/하드웨어 자국 내 생산 유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기업 유치 노력

## □ (비관세 장벽) 최근 BIS\* 인증 대상 품목 확대\*\*와 동시에 취득·갱신 절차가 지연되는 등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 품질관리 인증 주관 기관으로 대상 품목의 경우 인도 수입·유통을 위해서 제조자가 BIS 인증 취득 및 인증마크 표기 필수

\*\* 244개 품목('20) → 353개 품목('21) → 424개 품목('22) → 625개 품목('23) → 632개 품목('24.4)

### • 명확한 이유 없이 인증 절차가 지연되어 공급 지연 리스크 발생하며, 통관 시에도 인도 내 세관별 비일관적인 통관 관행으로 애로 가중

\* 인증 취득 소요기간(6개월~1년)이 점점 늘어나고, 인증 갱신 지연에 따른 통관 애로 발생

## 다. 투자

### □ 인도의 투자 유치(FDI) 현황

- (연도별) 2023/24년 인도 투자 유치금액은 전년 대비-3.50% 하락한 44.2억 달러

#### 〈최근 4개년 인도의 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9,636	19.0	58,773	△1.0%	46,034	△21.7%	44,423	△3.50%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 (국가별) 누적 기준, 對인도 투자국 순위는 ①모리셔스, ②싱가포르, ③미국 순임

#### 〈국가별 인도의 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국가	2021/22	2022/23	2023/24	2000.4월~2024.6월	
					누적액	비중
1	모리셔스	9,392	6,134	7,970	175,058	25.19
2	싱가포르	15,878	17,203	11,774	163,855	23.57
3	미국	10,549	6,044	4,998	66,701	9.60
4	네덜란드	4,620	2,498	4,924	51,134	7.36
5	일본	1,494	1,798	3,177	42,546	6.12
13	대한민국	300	284	386	5,900	0.85
총 FDI 유입액		58,773	46,034	44,423	695,041	100.0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 (분야별) 누적 기준, 對인도 투자 주요 분야는 서비스, 컴퓨터 분야로, 서비스는 금융, 은행, 보험, R&D, 기술 등을 포함

### 〈업종별 인도의 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분야	2021/22	2022/23	2023/24	2000.4월~2024.6월	
					누적액	비중
1	서비스 분야	7,131	8,707	6,640	113,490	16.33
2	컴퓨터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14,461	9,394	7,973	105,628	15.20
3	무역	4,538	4,792	3,865	43,855	6.31
4	통신	668	713	282	39,780	5.72
5	자동차 산업	6,994	1,902	1,524	36,658	5.27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 □ 인도의 해외 직접투자(ODI) 현황

- (연도별) 2023/24년 인도의 해외 투자는 전년 대비 6.42% 증가한 141.6억 달러

### 〈최근 4개년도 인도의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24.4~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2,103	△8.1	18,066	49.3%	13,306	△26.3	14,161	6.42%	7,059	68.8%

주: 2024/25년 증감률은 직전 회계연도 동기(4~8월) 대비 증감률

자료: 인도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 (국가별) 누적 기준, 인도의 해외 투자국 순위는 ①싱가포르, ②모리셔스, ③미국 순

### 〈국가별 인도의 해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국가	2022/23	2023/24	2024/25 (*24.4~8월)	2000.4월~2024.8월	
					누적액	비중
1	싱가포르	2,212	3,975	2,655	61,488	20
2	모리셔스	1,126	485	221	41,494	13
3	미국	2,032	2,624	1,004	38,285	12
4	네덜란드	817	1,098	721	25,719	8
5	영국	2,802	1,334	537	19,310	6
33	대한민국	-	-	-	796	-
총 해외 투자액		13,306	14,161	7,059	309,060	100

자료: 인도 경제부

- (업종별) 최근 3년간 인도의 해외 투자 주요 분야는 ①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와 ②제조 분야로, 동 2개 분야가 전체 투자의 64%를 차지

### 〈최근 3개년 업종별 인도의 해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업종	2022/23	2023/24	2024/25 (*24.4~8월)	2022.4월~2024.8월	
					누적액	비중
1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	4,546	6,133	4,013	14,692	42
2	제조업	3,516	3,200	794	7,510	22
3	도소매, 식당, 호텔	2,903	1,806	794	5,906	17
4	운송, 보관 및 통신	836	982	158	1,976	6
5	농업, 광업	714	792	283	1,789	5

자료: 인도 경제부

## □ 인도 투자 진출 진입 장벽(애로사항 및 위협요인)

- **인도의 투자 친화적인 환경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출 시 애로사항 존재**
  -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FDI 규제 완화 등 외국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정책 수립 등으로 투자 진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중
- **복잡한 인도 세제 및 과세 엄격화에 따른 진출 기업 애로 다수 발생**
  - 인도 규제 당국은 자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기업들에게 엄격한 세무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中 기업 사오미의 탈세 정황을 포착, 관세조사국(DRI)에서 약 1,154억 원의 벌금 부과
  - 中 기업뿐만 아니라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도 당국의 비공식적 세무조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어려움을 호소
- **인도 내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
  - 타국 대비 인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편이나(월 평균 \$200 미만, 하위 숙련 노동자) '24년 임금 9.5~9.8% 상승할 전망, 다소 높은 상승률로 진출 기업 부담 증가
    - \* 다만, 6~7%대 물가 상승률 고려 시 실질임금 성장률은 3~4% 수준
- **인도, 인프라 부족은 여전한 문제**
  - 인도는 인프라 부흥 계획(PM Gati Shakti)을 시행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 다만, 현재까지도 인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력 부족, 미흡한 배수시설에 따른 도로 침수 및 파손으로 인한 물류 지연·비용 증가 등 애로 존재

## 라. 프로젝트

### □ 인프라 부흥 계획(PM Gati Shakti Master Plan)

- 기존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NIP) 사업을 포함하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리더십 아래 중앙부처, 주정부 및 민간 분야 인프라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 제고
  - 인프라 부흥 계획은 수로 및 항만 개발, 회랑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결할 것으로 기대
- 주요 제조업 국가 수준의 인프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0조 루피를 투자하여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해운, 물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음
  - 러-우 사태,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하자 인프라 확충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수출 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로 판단
  - \* '24.7월, 2024/25년 인도 연방 예산안 발표 시 인프라 분야에 GDP의 3.4%에 달하는 약 1,340억 달러를 배정하며 전폭적인 인프라 개발 진행 중

### □ 2025년 인도 유망 인프라·건설·토목 등 프로젝트 현황

#### <도로>

발주처	Maharashtra State Road Development Corporation(MSRDC)	규모	104억 달러
프로젝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시기: 2024년 12월 (잠정)</li> <li>• 프로젝트 분야: (고속)도로</li> <li>• 발주방식: EPC(설계+조달+시공)</li> <li>• 지역: Nagpur to Goa (760km)</li> </ul>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하라슈트라 나구푸르에서 고아까지 760km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li> <li>• 인도 정부에서는 2022년 해당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3월 기술 타당성 검토('23.3월) 후 현재 토지 확보를 위한 지역 조사 중('24.6월)</li> <li>• 프로젝트 발주 및 건설 시작은 필요한 부지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가능</li> <li>• 고속도로 이름은 Shaktipeeth로, 마하라슈트라주 12개 지역을 통과</li> <li>• 특히 Shakti Peeth라 불리는 Mahalakshmi, Tuljabhavani, Patradevi를 통과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 시 종교 관광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인도 기업과의 협력으로 EPC에 참여 중인 한국기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가 한국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li>• 한편 동 프로젝트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지역 사회의 반대로 인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발주 시기는 늦춰질 수 있음</li> </ul>		

### 〈항만〉

발주처	Government of West Bengal	규모	약 30억 달러
프로젝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시기: 2025년</li> <li>• 프로젝트 분야: 항만</li> <li>• 발주방식: EPC(설계+조달+시공)</li> </ul>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웨스트벵골주 타지푸르(TAJPUR) 항만 건설</li> <li>• 콜카타에서 170km 떨어진 벵골만 연안에 심해항구 건설 예정</li> <li>• 2022년 Adani Ports and Special Economic Zone(APSEZ) Limited가 이 프로젝트를 낙찰하였으나 2023년 주정부에서 취소</li> <li>• 2024년 기준 웨스트벵골 주정부에서는 재입찰 고려 중</li> <li>• JSW Infrastructure Limited에서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지푸르 항구는 웨스트벵골주에서 건설하는 첫 번째 심해항구로서 인도 동부 지역의 물류 유통망에 큰 변화를 줄 프로젝트로 기대</li> </ul>		

### 〈산업(공장 설비)〉

발주처	LARSEN & TOUBRO LIMITED	규모	약 4억 달러
프로젝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시기: 2024~2025년</li> <li>• 프로젝트 분야: 산업(공장 설비)</li> <li>• 발주방식: Tender(입찰)</li> </ul>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약 40억 달러이며, L&amp;T는 4억 달러 규모의 EPC 공사를 수주함</li> <li>• L&amp;T 사업 범위에는 정제 능력을 연간 1,500만 톤(MMTPA, million metric tonne per annum)에서 연간 2,500만 톤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됨</li> <li>• 이 프로젝트에는 Residue Hydrocracker Unit(RHCU) 설치도 포함됨</li> <li>• L&amp;T는 다양한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하도급/입찰하고 있으며 케이블 인프라 설치도 그 중 하나임</li> <li>• 40억 달러 규모의 정유공장에는 수천 미터의 케이블 설치가 필요함. 이러한 케이블은 전력 케이블, 제어 케이블, 계기 케이블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전기 장비, 자동화 제어 시스템,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원 공급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됨</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상반기 첸나이 플랜트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발주처와 국내기업이 지속 접촉 중임</li> </ul>		

### 〈Green Hydrogen 생산설비〉

발주처	ANIL (Adani New Industry Lmt.)	규모	약 50B\$ (향후 10년간)
프로젝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시기: 2023~2032년</li> <li>• 프로젝트 분야: 그린수소 생산·운송·저장, 암모니아 변환 등 관련 시설</li> <li>• 발주방식: 조달</li> </ul>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자라트주 Rapar, Khavda, Mundra 지역에 그린수소 관련 시설</li> <li>• 최대 2MMTPA(Million Metric Tons Per Annum) 생산 목표</li> <li>•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ANIL이라는 아다니 그룹 내 별도 조직을 신설</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프로젝트로 별도의 공개 입찰공고나 비딩의 과정 없이 필요에 따라 공급 가능 기업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필요 설비를 조달할 예정</li> <li>• 인프라에너지팀의 H2 Meet 2024(9.25~27) 연사로 참여하여 프로젝트 소개 예정</li> </ul>		

### 〈플랜트〉

발주처	Andra Pradesh Industri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규모	약 200만 달러
프로젝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시기: 2026~2032년</li> <li>프로젝트 분야: 플랜트</li> <li>발주방식: EPC(설계+조달+시공)</li> </ul>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드라프라데시주 그린암모니아 플랜트 프로젝트</li> <li>녹색에너지 인프라 구축 위해 주정부에서 인도국영화력발전공사(NTPC)를 디벨로퍼로 플랜트 건설 계획</li> <li>그린암모니아는 수출이 주 목적이며 필수 인프라인 질소, 그린에너지 공급, 부지 등이 구비된 브라운필드 프로젝트, 요구되는 연료전지 규모 5KW 수준</li> <li>발주처는 최저가격 및 고효율 솔루션 선호, 필요 자금은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에서 100% 지원</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S 검토 중으로 2024년 4분기 완료 후 2025년 1분기 입찰 예정</li> </ul>		

### 〈IT〉

발주처	Karnataka State Road Safety Authority	규모	약 100만 달러
프로젝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시기: 2025년</li> <li>프로젝트 분야: IT</li> <li>발주방식: Tender(기술 입찰)</li> </ul>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건설된 벵갈루루-마이수르 고속도로(119km, 6차선)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사고 및 위험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 및 급급차량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형 교통 시스템 개발</li> <li>해당 도로는 잦은 교통사고(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296건의 사고 발생, 132명 사망), 폭우 침수, 갓길 정차 차량 추돌 사고 자주 발생</li> <li>발주처는 인도 도로 상황을 이해하고 글로벌 인증을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솔루션 필요</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S 검토 중으로 2024년 4분기 완료 후 4분기 입찰 예정</li> <li>발주처(주정부) 예산 100% 확보 및 지원</li> </ul>		

### 〈에너지〉

발주처	INDIAN OIL CORPORATION LIMITED	규모	약 4.4억 달러
프로젝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시기: 2024~2026년</li> <li>프로젝트 분야: 송유 및 가스관 건설</li> <li>발주방식: EPC(설계+조달+시공)</li> </ul>		
상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ldia(웨스트벵갈)-Barauni(비하르) 송유 및 가스관 건설</li> <li>517km 규모</li> <li>웨스트벵갈-자하르칸트, 비하르를 연결하는 송유 가스관 프로젝트</li> <li>HDD(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기술을 사용하여 설치 추진</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 발표 전망</li> </ul>		

### 〈의료 시스템 개발〉

<b>발주처</b>	TELECOMMUNICATIONS CONSULTANTS INDIA LIMITED	<b>규모</b>	약 12백만 달러
<b>프로젝트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시기: 2026년 (잠정)</li> <li>프로젝트 분야: 시스템 개발</li> <li>발주방식: Tender(입찰)</li> </ul>		
<b>상세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정부는 NHM(National Health Mission)의 일환으로 웹 기반 G2G 건강관리정보시스템(HMIS)을 구현하고자 함</li> <li>담당 부처는 보건가족복지부(MoHFW)이며, 발주처(TCIL)가 동 프로젝트 단독 진행 예정. 이 시스템은 의료시설 등급 지정, 희망 지역 식별, 주(State) 구현 계획(PIP) 검토 등을 제공함</li> </ul>		
<b>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처는 시스템 개발 부문 글로벌 기업을 접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참여도 희망함</li> <li>관련 재원은 전액 발주처 재원임</li> </ul>		

#### □ 스마트시티 정책 - Smart City Mission

<b>정책명</b>	스마트시티 미션 / Smart City Mission							
<b>추진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여 핵심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고 적절한 삶의 질,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 개발 정책</li> <li>깨끗한 물 공급, 안정적인 전기 공급, 고형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위생, 효율적인 도시 이동성 및 대중교통,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 등을 포함</li> <li>이 외에 강력한 IT 연결 및 디지털화 등을 통해 전자정부 강화와 시민 참여 독려,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의 안전 및 보안, 보건 및 교육 향상 등이 포함</li> <li>슬럼가를 포함한 기존 지역을 보다 계획적인 거주지로 변화시켜 도시 전체의 거주성을 개선코자 함</li> <li>이러한 방식의 종합적인 개발은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과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을 향상시켜 포용적인 도시로 이끌 전망</li> </ul>							
<b>추진기간</b>	2015~2025년							
<b>담당부처</b>	인도 주택도시부 /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Affairs(MoHUA)							
<b>투입 예산</b>	<b>국고</b>	약 1,128억 달러						
	<b>민간</b>	약 1,272억 달러						
<b>주요 정책 세부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7월 기준, 총 8,018건의 입찰 프로젝트 중 7,202건이 완료</li> <li>주택도시부는 미션 완료 기간을 2023년 6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연장한 바 있음</li> <li>전체 예산 중 민간의 참여가 특히 강조되었으며, 선정된 도시들이 직접 제출한 스마트시티 제안서에 시민들의 구체적인 제안 방안을 담은 점이 긍정적</li> <li>스마트시티 미션 종료 이후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주거를 위한 국가적 미션' 정책(NMSH, National Mission on Sustainable Habitat) 수행 예정</li> </ul>							
<b>한국과 협력 가능 분야</b>	교통/물류	√	인프라	√	에너지/환경	√	재난방지/안전	√
	헬스케어	√	정부/교육	√	기타	폐기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시티 미션이 추진하는 10대 기반시설에 우리 기업 협력 가능 분야 多</li> <li>1. 상수도 공급 2. 전기 공급 3. 고형 폐기물 관리 4. 대중교통 시스템 5. 빈곤층 주택 공급 6. 디지털화 7.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8. 지속 가능 환경 구축 9.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시스템 10. 건강 및 교육 환경 개선</li> </ul>							

□ 스마트시티 정책 - 도시 재생 및 도시 변혁 미션 2.0

<b>정책명</b>		도시 재생 및 도시 변혁 미션 2.0 /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AMRUT 2.0)							
<b>추진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10월 1일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인도의 모든 도시에 상하수도 연결을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 목표</li> <li>• 또한 녹지와 열린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 가치를 높이고 대중교통을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함</li> </ul>							
<b>추진기간</b>		2021~2026년							
<b>담당부처</b>		인도 주택도시부 /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Affairs(MoHUA)							
<b>투입 예산</b>	<b>국고</b>	약 92.5억 달러							
	<b>민간</b>	약 267.8억 달러							
<b>주요 정책 세부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도시의 수도물 연결, 하수도 연결, 수자원 보존, 수역 및 우물 재생, 처리된 사용수의 재활용, 빗물 수확이 주요 내용</li> <li>• 도시별 물 균형 계획 개발 통해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li> <li>• 2021/22 회계연도부터 2025/26 회계연도까지 5년간의 기간 동안 운영 예정</li> <li>* 인도 회계연도는 당해 4월 1일~차년도 3월 31일</li> <li>• 2022년 12월까지 인도 전역에 1,340만 개의 수도물 연결과 1,020만 개의 하수도를 연결하였음</li> <li>• 이 외에도 물의 공평한 분배, 폐수 재사용, 도시·농촌 간 공정한 물 사용, 물 절약을 위한 대중 교육 캠페인 등의 전개를 포함하는 정책</li> </ul>							
<b>한국과 협력 가능 분야</b>		교통/물류		인프라	√	에너지/환경	√	재난방지/안전	
		헬스케어		정부/교육		기타		하수/배수 관리	
<b>한국과 협력 가능 분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처리 전반 우리 기업 협력 가능 분야 多</li> <li>• (수처리) 도시 상수도·하수도 보급, 빗물 배수, 빗물 수확 등 스마트 물 처리</li> <li>• (수자원) 수자원 보존, 수역 재생, 처리수 재활용 등 전반적인 물 관련 인프라 개선</li> <li>• (기타) 녹지 공간 확대, 여성과 청소년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수질 관리 등</li> </ul>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가. 교역

##### □ 수출입 동향

- '23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8대 수출 및 23대 수입국
  - (수출) '23년 對인도 수출은 17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감소
  - (수입) '23년 對인도 수입은 67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4% 감소
  - \* '23년 한-인도 교역액은 '22년 대비 11.1% 감소
- 무역수지는 CEPA 발효 이전 5개년간 평균 6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다 점차 증가하여, '1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 단, '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對인도 수출이 큰 폭 감소(△20.9%)하며 흑자 폭도 감소

#### 〈최근 5년간 한-인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8월
對인도 수출	15,096	11,937	15,603	18,870	17,950	12,583
對인도 수입	5,565	4,901	8,056	8,897	6,728	4,272
무역 수지	9,531	7,037	7,547	9,973	11,222	8,31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 품목별 동향

- 對인도 수출은 반도체·철강판·합성수지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위주, 對인도 수입은 석유제품·농약 및 의약품 등 저부가가치 원자재 위주

〈한국의 對인도 5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2022	2023	증감(%)	품목	2022	2023	증감(%)
1	집적회로반도체	2,237	1,919	-14.2	나프타	2,673	1,632	-38.9
2	합성수지	1,598	1,748	9.4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607	875	-45.5
3	자동차부품	1,149	1,199	4.3	의약품	517	588	13.7
4	열연강판	855	887	3.8	연괴및스크랩	262	250	-4.6
5	윤활유	926	851	-8.1	합금철	262	249	-5.0
	총계	18,870	17,950	-4.9	총계	8,897	6,728	-24.4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우리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전자부품 제조사 V사

- **(진출 전 현황)** V사는 플라스마 세정기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주요 바이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 등 정밀 소재 부품 기업이다. V사는 현재 중국, 베트남, 대만 등에도 수출하고 있음
- **(시장조사)** 인도는 구자라트주를 중심으로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을 통해 마이크론, 타타일렉트로닉스 등의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으로, V사는 이러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해보기로 결심
- **(마케팅 전략)** 성과로 만들기 위해 KOTRA 지사화 사업에 신청하고, '24년 Semicon India에 부스를 운영하는 등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 2024년 7월 구자라트 주정부에서 주관한 SemiConnect에서 KOTRA 암다바드 무역관이 V사를 대신해 현지 바이어와 미팅하고 V사의 제품을 소개하기도 함
- **(결과)** 인도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S사는 하반기 프로토타입 생산을 목표로 생산 설비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며, V사에 세정기 수입을 위한 PO(구매 주문서)를 전달하였으며, V사는 조만간 인도로의 첫 수출 물량을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인도의 반도체 제조 산업은 인도 정부 및 마이크론·타타 등 글로벌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한국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음. 그러나 국내 기업 V사는 진입이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KOTRA 암다바드 무역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플라스마 세정기 수요가 있는 바이어 S사와 미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었음

## 나. 투자 진출

### □ 투자 동향

- (對인도 투자) 주로 자동차(현대·기아), 전기전자(삼성·LG) 등 대기업·협력사 제조업 위주 진출, '24년 3월까지 누계 총 83.97억 달러를 투자

\* 세계의 對인도 FDI 중 제조업 비중은 20% 내외인 반면 우리 기업의 對인도 투자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77.4% 차지, 그 외 도·소매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순

#### 〈연도별 對인도 투자 진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건, 개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3월)	누적 (1980~2024.3월)
투자금액	625	343	371	453	79	8,302
신고건수	310	246	256	307	66	5,108
신규법인수	75	56	60	75	24	1,51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인도 주요 진출 기업〉

업종	주요 진출 기업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만도, 서연이화, 성우하이텍, DY오토
전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이랜텍, 모베이스, 삼광, KH바텍, 자화전자
철강·화학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삼성물산, LG화학, 롯데케미칼
기계·건설	현대건설기계,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YG-1
섬유·봉제	이랜드, 효성, 영원무역
의료·바이오	SD, 바디텍메드, 미코바이오메드
금융	한국투자공사, 미래에셋, 5대 시중 은행(신한, 하나, 우리, NH, 국민)
식품	롯데웰푸드, 오리온
반도체·배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반도체

- (인도의 對한국 투자) '62년부터 '24.6월까지 총 749건, 7.6억 달러 투자 신고, 이 중 5.9억 달러가 도착(제조업·서비스업 중심, 투자신고액 대비 77.6%)

### 〈연도별 인도의 對한국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건, 개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6월)	누적 (1962~2024.6월)
신고금액	1,433	2,022	81,466	1,657	1,981	764,134
신고건수	12	10	17	15	11	749
도착금액	729	910	485	1,426	725	592,674
업체수	5	7	8	12	7	43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보석 가공 및 판매기업 K사

- **(진출 전 현황)** 국내 최대 보석류 판매 회사인 K사는 최근 천연 보석과 함께 인조보석 분야에도 많은 연구개발과 마케팅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인조보석의 가공을 위해 저렴하고도 우수한 인력이 많은 지역을 물색하고 있음
- **(시장조사)** KOTRA '해외시장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6개월간의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인건비 및 인력 수급 면에서 인도 구자라트주의 수랏을 최적의 대상지로 정하고, 한국에서 원석을 가져와서 수랏에서 가공/재수출에 유리한 SEZ(Special Economic Zone)의 입주를 목표로 함
- **(진출전략)** 동사는 한국에서 보석 원석을 가져와서 수랏에서 가공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혜택을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수랏의 특별경제구역에 법인 설립을 결정함. 시장조사 및 법인 설립 과정에서 KOTRA 암다바드 무역관의 지원을 받아 수랏 SEZ를 관할하는 수랏 GIDC 담당자를 방문하고 법인 설립 및 공장 건축 과정에서의 신속한 정보 교환을 위한 채널을 확보
- **(결과)** 동사는 2023년 11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생산/가공을 위한 공장 건축과 설비 도입을 진행하고 있음. 2024년 하반기부터 수랏 법인에서 생산된 보석류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

## 다. 협력 유망 분야

□ (공급망, G2G/G2B) 한-인도 광물자원(핵심 광물 포함) 분야 정기적 소통 채널 구축,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도 간 광물 협력 기반 마련

• 인도 광물 주무 부처인 광물부와 협력하여 리튬 등 핵심 광물 정책 및 탐사 동향 파악, 우리 기업의 안정적 광물 확보 전략 도출 필요

- (인도 측 협력 희망 분야) 인도의 광물 매장량 대비, 채굴-선광-제련-주조 등 취급 기술이 취약하므로, 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의 합작 투자 진출 고려, 핵심 광물 탐사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 협력 고려

\* 인도, 첨단 산업 핵심 광물인 코발트, 리튬, 니켈, 베릴륨 등을 사실상 수입에 의존(인도 광물부, '23.6월)

- (한국 측 협력 희망 분야) 인도의 광물 생산 기업(MOIL-망간, IREL-희토류)뿐 아니라 탐사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업무협약 체결 희망,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국 간 광물 협력 소통, 기업 미팅, 사절단 개최 등 지속 교류 희망

□ (제조업, B2B) (한국)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하드웨어, (인도) IT 서비스, 핀테크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유망

• 인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27년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조업을 육성 중이며, 한국을 제조업의 중요 파트너로 고려하여 적극적 투자 유치 중

- (인도 측 협력 희망 분야) IT/SW 위주로 산업이 성장하여 현지 제조업 생산 생태계가 다소 미흡한바, 제조업 및 하드웨어 숙련 인력 육성 분야 협력

- (한국 측 협력 희망 분야) 인도 현지 이공계 인력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설계/검증/해석) 업무, 현지 맞춤형 제품, 기술 개발, 각종 데이터 분석 외주화 등

□ (방산/우주, G2G/B2B) 인도, 이공계 우대 문화 속 양질의 이공계 엔지니어 양성 통해 우주·원자력 등 기초과학 발달, 한국은 우수한 방산 산업 보유

• '23.8월 우주탐사 강국 인도, 달 남극에 탐사선 착륙. 한국은 발사체 개발 능력 있지만, 국제적 프로젝트에선 입지 좁은 만큼 양국 방산/우주 협력 유망

- (인도 측 협력 희망 분야) 국방비 지출 세계 3위, 군사력 순위 4위 및 최대 방산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차기 차주포,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우리 방산기업 참여 가능

- (한국 측 협력 희망 분야) 신설 예정인 한국 우주항공청, 설립 50년 된 인도 우주청과 협력 추진, 위성 항법 시스템, 인공위성 정보 활용 등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 ※ (정치) '24년 모디 총리 3연임 성공하였으나 연정 · 빈부격차 · 실업률은 여전한 과제
- ※ (경제) 6~7%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최대 신흥 경제권 자리매김, 제조업 성장
- ※ (문화) 평균연령 28세 젊은 노동력,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환경규제 강화
- ※ (기술) 전자상거래, 온라인교육 등 스타트업 태동, 양질의 이공계 인력 배출

### 1. PEST 분석

<b>Political</b> 정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모디 총리 3연임 성공하여 소수 정당과 연정 통해 정권 유지</li> <li>• 빈부 격차 확대, 청년 실업을 문제 등은 현 정권의 여전한 과제</li> <li>• 인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li> <li>•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심화</li> </ul>
<b>Economic</b>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7%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최대 신흥 경제권 자리매김</li> <li>•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연에도 금리 및 물가수준 안정적으로 관리</li> <li>• 제조업 점진적 성장에도 다소 높은 청년 실업률 지속</li> <li>• 무역적자 심화에 따른 루피화 가치 하락 지속되나 주식시장 활황</li> </ul>
<b>Social</b>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연령 28세 젊은 노동력, 일자리 창출 및 숙련 인력 육성은 숙제</li> <li>•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온라인 쇼핑, 에듀테크 등 활황)</li> <li>• 웰빙, 친환경제품 관심도 증가 및 환경 규제 강화</li> <li>• 프리미엄 제품 선호하나 가성비 중시, 현지 맞춤형 제품 선호</li> </ul>
<b>Technological</b>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IT 아웃소싱 넘어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등 스타트업 태동</li> <li>• 양질의 이공계 인력 배출 통해 전 세계 엔지니어 공급</li> <li>• 디지털 결제, 디지털 신분증 통한 14억 통합 디지털 경제 실현</li> <li>• 기초과학 강국으로 항공우주, 원자력, 방산 등 협력 가능성 다수</li> </ul>

##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강 점(Strength)

- 인도 정부가 적극 육성하는 첨단 제조업(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기술력 보유
-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 등 우리 기업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양국 우호적인 관계 통한 안정적 GVC 공급망

### 약 점(Weakness)

- 현지 제조업 인프라 및 물류·유통 인프라 취약
- 가격 민감성이 높고 구매력이 낮은 시장임에도 가격-품질 포지셔닝 불분명, 현지 맞춤형 제품 부재
- 기업 진출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 인적/기술교류 미흡, 인도 특화 진출전략 부재

### 기 회(Opportunity)

- 중산층 증가 및 구매력 향상에 따른 거대한 소비시장 형성
- 한류 문화 확산 및 온라인 쇼핑물 보급에 따른 한국산 소비재 구매 잠재력 보유
- 저렴하고 젊은 IT/SW 노동인력 활용 가능
- 특정국 산업 의존도 탈피를 위한 노력 전개

### 위 험(Threat)

- 무역적자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심화, 관세 인상 등 통상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활용
- 인도 정부당국에 의한 우리 기업 현지 경영 시 행정 리스크 다수
- 환경 규제 강화, CSR 등 ESG 강화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확대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화학 주력 수출 품목 고도화 및 다각화</li> <li>• 풍부한 인도 스타트업·IT 소프트웨어 인력 활용</li> <li>• 인도 중산층 확대 공략 통한 소비재 판매 확대</li> </ul>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수출 확대</li> <li>• 인도 자국 내 생산거점화 유치정책 활용</li> <li>• 전력 송·배전, 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탄소 중립 기회 활용</li> </ul>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건설·프로젝트 고부가가치 수주 전략</li> <li>•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제품 포지셔닝 차별화</li> <li>• 화장품·식음료 등 소비재 온·오프라인 진출 확대</li> </ul>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 이슈, 관세·비관세 장벽, 행정 리스크 선제적 대응</li> <li>• 위험요소 사전 파악하여 대응책 마련, 민관 협의체 활용하여 애로사항 상시 공유 및 문제 해결</li> <li>• CSR 참여 통한 주정부와의 협력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li> </ul>

###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Make In India 고도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지서 필요로 하는 제조업 합작투자·기술이전 수요 대응</li> <li>②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태동 산업 초기 설비·자본재 공급</li> </ul>
한류와 함께 성장하는 소비재·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현지 맞춤형 제품 출시 및 온라인 유통망 공략을 통한 소비재 판매</li> <li>④ 한류 확산 잠재력 활용 콘텐츠·서비스 산업 진출</li> </ul>
풍부한 엔지니어· 디지털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 활용한 R&amp;D·엔지니어링 거점 진출</li> <li>⑥ 거대 내수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선점</li> </ul>
친환경 및 인프라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제조업 진출</li> <li>⑧ 사회간접자본 및 도시 개발 프로젝트 참여</li> </ul>
민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⑨ 보호무역, 행정 리스크 등 애로사항에는 민관 공동 대응</li> </ul>

기업하기 어렵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기회가 있는 인도 시장을 제대로 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 3-1. 현지서 필요로 하는 제조업 합작투자·기술이전 수요 대응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여건)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에서 인도의 산업경쟁력과 가치사슬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印 정부의 기업 투자 유치 노력에 따라 제조업 외 다양한 부문 수출 및 진출 수요 발생
- ※ (전략적 가치)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 제조업 클러스터 효과 활용한 생산성 향상 중. 인도를 중동, 아세안, 유럽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4년 7월 인도 정부 백색 가전제품(에어컨 및 LED 부품 및)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추가 모집 개시 (접수 기한 '24.10.12일까지)
  - 인도 정부는 현재 인도 내에서 에어컨 및 LED 조명의 부품이 충분히 제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모집을 개시
  - 2021년 이후 66개 기업이 승인되었으며 전체 투자(예정) 규모는 약 83억 달러로 추산
  - (에어컨 부품) LG, DAIKIN, VOLTAS, BLUE STAR, JOHNSON HITACHI, PANASONIC, HAIER, MIDEA, HAVELLS, IFB, 등이 기존 승인 기업
  - (LED 조명 부품) DIXON, R K LIGHTING, RADHIKA OPTO, SURYA, ORIENT, SIGNIFY, CROMPTON GREAVES 등이 기존 승인 기업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합작투자·기술이전) PC, 백색가전 등 최첨단 산업은 아니나, 중국 수입 대체를 위한 현지 육성 제조 분야에 대한 합작투자·기술이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 '24년 7월 인도 정부 가전제품(에어컨 및 LED 부품)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추가 모집 개시 (현재 인도 내 가전 부품인 PCB 등을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
- 합작법인, 기술협력, 신산업 투자 등으로 진출방식 다각화하되, 인도를 중동·아세안·유럽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
  - 인도 정부가 시행 중인 수출 세금 감면 제도(RoDTEP\*, EPCG\*) 활용하고, 인도를 ASEAN, GCC 지역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
    - \* 수출품세금감면제도(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 RoDTEP) : 수출업자들은 수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부과된 중앙·주정부 세금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 가능(인센티브는 제품별 상이)하며, 환급된 금액은 Tax Credit 형태로 세금 공제 적용이 가능
    - \* 수출 조건부 자본재 도입 관세 면제 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EPCG)
    - \* 미국, 중국 제외 시 인도 수출 3대 경제 공동체는 EU, ASEAN, GCC(Gulf Cooperation Council)로, 특히 ASEAN, GCC는 인도의 주요 수출시장

• **유망 품목**

- (제조업) 에어컨, LED, 통신기기, 의료기기, PC, 노트북, 휴대폰, 휴대폰 부품 등
- (기술) 자동차 자율주행·전력관리 기술, PC·모바일 하드웨어 생산을 위한 기술 전반, 가전제품(에어컨, TV) 생산을 위한 기술 전반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성공 사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사, 인도 고객사의 현지 공장 설립 요구에 부응한 신속한 인도 투자 진출**

- **(진출 전 현황)**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의 소재를 이용하고 가전 및 자동차용 부품의 금형을 제작하여 다이캐스팅을 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으로 주조, 가공, 사상, 조립 등을 하는 제조회사로 고객사의 제조 현지화 요구에 적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용 다이캐스팅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지 진출 추진 결정
- **(시장조사)** 무역적자 감축 및 자국 내 생산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인도 내 제조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각종 수입 규제 정책 시행 중인 점을 확인하고 현지에 제조설비 투자 진출 결단을 내림
- **(진출전략)** D사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고객사들의 요구에 신속한 법인 설립이 필요하였으며, KOTRA 첸나이 무역관을 방문('24.2월)하여 인도 진출 관련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시작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업체를 소개받는 등 신속한 추진으로 법인 설립 완료('24.3월). 이 과정에서 KOTRA 첸나이 무역관은 무역관장이 현지 직원과 함께 현지 로펌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전방위 지원, D사는 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가입
- **(결과)** 진출 지원 과정에서 D사와 무역관은 '법인 설립 → 부지 구입 → 공장 건물 건설 → 설비 도입 → 시험 생산' 등 기존 준비 과정으로는 H사가 희망하는 납기('25년 초)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 H사 인근에 단기 임대공장을 신속히 수배, 납기 내 제품 생산 시작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시간을 두고 조건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여 자체 공장 건립을 준비 중임

## 3-2.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태동 산업 초기 설비·자본재 공급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여건) 우수한 IT·반도체 설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24.10월 기준, 인도 내에 상업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FAB은 사실상 없음
- ※ (전략적 가치) 인도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은 태동 단계이나, 우리 기업이 이 부분에 이미 숙련도가 높은 상태로 우리 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 정부, 100억 달러 규모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법 발표, IT 하드웨어 생산 연계 인센티브 2.0 발표 등 자국 내 생산 장려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발표**
  - 인도는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분위기를 활용하여 생산 연계 인센티브 등 투자 유인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향 생산기지 이전 유도
  - 무역적자 규모 감축 및 자국 내 생산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인도 내 제조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각종 무역구제 정책 시행
    - \* ('24.12.31일까지 연장) '23.8월 인도 대외무역총국, 노트북, 태블릿 등 수입의존도 높은 IT 7개 품목을 수입 제한 품목으로 전격 지정하였으나, 가격 상승 및 업계 반발에 시행 유예
- **'24년 3월 인도 중공업부, 4륜 전기승용차 생산 촉진 정책 발표**
  - CIF 가격 35,000달러 이상의 완성된(CBU, Complete Body Unit) 전기승용차 대상 조건부 관세 인하
  - 인도 중공업부의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15%의 관세율로 수입 가능
    - \* 현재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CIF 40,000달러 이상은 100%, 그 외는 70%로 규정
  - 할인된 관세로 수입이 가능한 차량 대수는 연간 8,000대로 제한, 다만 연간 한도 미사용분은 차년도로 이월(carryover) 가능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설비·자본재 투자) 인도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초기 막대한 자본 세팅이 필요한바 설비 공급 적기 포착**
  - \* 인도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인도에 마이크로 반도체 조립·테스트 공장, 타타일렉트로닉스-PSMC 파운드리, 타타세미컨덕터 반도체 조립·테스트 공장 건설 중
-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활용 및 현지 기업과의 협업 통해 인도 내에서 전기차·전기전자·이차전지 등 제조업 진출을 고려하되, 현지 맞춤형 제품 출시 검토**

- 전기전자, 화학, 기계류, 이차전지 등 제조업 핵심 부품 수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우리 부품 기업들의 인도로의 직접 투자 확대 고려
  - \* 인도 현지 전기차 제조사는 4륜 전기차 분야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등 자율운행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중견기업과의 기술제휴, 합작투자 수요 多
- 현지 맞춤형 제품 출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 기업은 부품·소재 기술우위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 기술제휴, 현지 A/S 체인 운영을 통한 진출 고려
  - \* 현대·기아차는 크레타, 소닛, 카렌스 등 현지 맞춤형 SUV로 인도 시장 점유율 각각 2위(현대), 5위(기아) 달성 ('24.1~6월 판매량, 인도자동차딜러협회)
  - \* 포드, 과거 인도 시장 철수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첸나이로의 복귀 가능성 검토 중

• **유망 품목**

- (제조업·스마트공장) 반도체 설비, 디스플레이 설비, 공작기계, 프레스머신, CNC머신 등 생산설비, 사물인터넷
- (IoT),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서, CCTV, 산업용 AI 로봇 등

### 3-3. 현지 맞춤형 제품 출시 및 온라인 유통망 공략을 통한 소비재 판매 확대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여건) 인도 유통시장 디지털화와 대형화 동시에 진행 중이며, 특히 구매력 향상에 따른 이커머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중·고가 화장품, 온라인 식료품 시장 성장 중
- ※ (전략적 가치) 인구 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두터운 중산층 형성, 온라인 유통망 입점 시 전통 유통망 대비 진입이 용이, 낮은 비용으로 현지 시장 진출 가능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유통시장 디지털화·대형화가 동시 진행 중이며, 중산층 확산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중·고가 뷰티·패션, 식료품 등 소비재 수요 증가세\*
  - \* 가전(에어컨, TV, PC 등), 식료품(한국 라면, 과자, 인스턴트 커피), 패션(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 \* 소비시장(FMCG) 성장률: 연 27.9%('21~'27) / 전자상거래 성장률: 연 26.7%('22~'27)
- Amazon India, Flipkart, Myntra, Snapdeal, Jio Mart, Tata CLIQ, Ajo, Paytm Mall, Big Basket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인도 시장의 새로운 관문으로 등극
  - 인도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5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5~40%가 전자상거래를 활용
  - 4G 인터넷 보급, 스마트폰 사용 증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사용자 증가세
  -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가전제품, 생활용품, 식료품 위주로 성장 중. 이 외에 Myntra(뷰티·패션), Shopsy(저가 제품), Nykaa(화장품) 등 플랫폼 활성화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인도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 현지 생산이 필요하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제품 출시 및 현지 맞춤형 마케팅은 필수
  - 식품 FSSAI 인증, 화장품 CDSCO 인증 취득 필요, 단순 한국 제품 판매보다는 현지 맞춤형 제품(채식, 종교), 저가 가격 책정(축제기간 할인), 마케팅 병행
  - \* 롯데웰푸드, 인도 소비자 취향 반영한 채식주의자용, 소량 패키징 초코파이 현지 생산
- 전자상거래(Amazon India, Flipkart 등)가 활성화되어 있어 K-뷰티·식품 판매가 용이하므로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및 판촉 전개
  - 한국 제품 우수한 품질, 혁신적인 패키징 등을 살려 인도 시장 진출
  - \* 슈퍼켄, 인도 Tata그룹과 손잡고 플립카트, CLIQ 등 온라인 유통망에서 스마트폰 액세서리 판매

• 유망 품목

- (화장품)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선크림, 클렌징)
- (식음료) 가공 식음료(면류, 밀키트, 인스턴트 커피, 전동차)
- (소비재) 천원숍, 문구류, 의류, 전기장판, 온수매트, 공기청정기 필터 등
- (의료/미용기기) 미용기기(미백, 리프팅), 의료기기(혈압계, 덴탈기기) 등

□ 한국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우리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화장품 기업 K사

- **(진출 전 현황)** A사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화장품 전반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제품을 수출 중. OTT 콘텐츠 확산과 인도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을 발판 삼아 A사도 인도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
- **(시장조사)**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K-푸드에서 K-뷰티로 확산되어가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 한국산 화장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 채널, 더 많은 브랜드 제품 수입을 위한 한국 지사 설립 등 뷰티 산업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니즈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한편, 인도에서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는 인증(CDSCO) 획득이 필수적으로, 일부 시장 진입 장벽으로도 작용
- **(마케팅 전략)** 시장의 니즈 확대에 따라 인도에서도 개최가 시작된 뷰티 전시회(COSMOPROF)에 참가하여 유통망에 입점권을 가지고 있는 바이어 신규 발굴.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이후 유통망과 협업하여 SNS, 오프라인 행사 등을 적극 개최하고 직접 참가하는 등 마케팅에 주력
- **(결과)**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인도 대형 유통망 입점에 성공하였으며,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한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인도로의 수출이 5배 이상 증가
- **(시사점)** 한류로 한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태라고 보고 있음.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현지 필수 인증 획득과 함께 제품의 특징점을 잘 살린 마케팅 전략이 필수

### 3-4. 한류 확산 잠재력 활용 콘텐츠·서비스 산업 진출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여건) 한류 열풍으로 한국 대중문화, K-뷰티, 한국 첨단기술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중. 웹툰, 온라인 게임, 에듀테크 등 K-Contents 진출 기회 확대
- ※ (전략적 가치) 인도는 한류 성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 콘텐츠 확산은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 확대 및 진출 기업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 스마트폰 및 인터넷 여건 개선에 따라 인도 시장서 날이 증가하는 한국 문화 영향력

-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모바일 게임, 웹툰, 에듀테크, 한국어 교육 등 K-콘텐츠 관심 확대
- 인도, 한류 성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드라마, 음악 위주였던 한류(K-Wave)에 대한 관심이 K-라이프스타일(식품, 소비재 등) 전반으로 확장

\* 인도인 84.3%가 K-콘텐츠 경험 후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진흥원)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 인도 현지 업체와의 합작투자·기술교류 통한 현지화 및 마케팅 진행

- (웹툰) 인도 웹툰 시장 형성 단계로, 웹툰 출판 및 홍보 위해 주요 플랫폼(Webtoon, Pratilipi comics, Kross Komics 등) 선점 또는 현지 출판 업체와 제휴
- (에듀테크) 인도 바이주스 등 온라인 교육 시장 성행 중. 우리 기업 한국어 교육 플랫폼, 스마트 러닝 솔루션, 학습 관리 시스템 등 차별화 통해 진출 필요

##### • 성장성 높은 게임시장 블루오션인 인도 시장 선점하되 IP(지적재산권) 확보하여 웹툰, 영상 등으로 확장

- 인도의 경우 아직 게임 개발 능력이 미흡하여 외국산 게임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현지 특성상 인도 맞춤형 게임 및 지역별 상이한 현지어 병기 필요
- 중장기적으로 게임시장 성장 전망, 다만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규제 환경 모니터링 및 E-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필요

\*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BATTLEGROUND MOBILE INDIA, BGMI), 인도 1위 게임 등극하였으며, 추후 현지에 4,000억 투자 예정 (크래프톤 인도사업전략실, '24.9월)

##### • 유망 품목

- (한류) K-POP 콘서트, 굿즈, 영화, 드라마, 음악, 한식 레시피, 한식당 서비스
- (교육) 인터넷 강의, TOPIK(한국어능력시험) 콘텐츠, K-보육(태권도학원) 시스템
- (콘텐츠) 웹툰, PC 게임, 모바일 게임

## □ 한국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 크래프톤社 - 인도 국민 모바일 게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 **(진출 전 현황)** 2022년 기준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내 플레이 유저 수는 중국 52%, 한국 34%, 홍콩 30%, 일본 30%로 동아시아가 압도적이거나, 미-중 분쟁 및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기업활동이 다소 위축됨에 따라 주요 진출 시장을 중국 외 시장으로 다변화하고자 하였음. 이에 인도 14억 인구의 모바일 위주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고 주력 시장으로 투자 진출
- **(애로 해소)** 배틀그라운드는 인도 게임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22.7월 정보 보안, 폭력 및 중독성 등의 이슈를 이유로 인도 정보통신부(MEITY, Ministry of Electronics & IT)로부터 임시 서비스 중단을 받았으나 2023년 하반기 영업 재개
- **(시장 평가)** 2023년 인도 게임 유저 수는 5.7억 명으로 인도 최고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관객 수(6억 1,200만 명)에 버금가는 수준. 과거 중국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최대 시장으로 부각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 게임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
- **(마케팅 전략)** 게임 유저 수를 늘리기 위해 영화 배우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 스타들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인도 게임 생태계에 투자 기회 모색
- **(결과)** 크래프톤은 인도 현지 BGMI 서비스를 통해 인도의 E-스포츠를 선도해 나갈 전망. 또한 인도에서 다양한 마케팅과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크래프톤 및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증대시키고 게임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
- **(2024년 현황)** BGIM 인도 사용자 1억 명 및 누적 매출 1억 달러 돌파('24.2), BGIM은 인도 e스포츠의 선구자로 각종 리그 및 대회 개최 중이며, 웹소설, 교육 콘텐츠 등 인도 내 스타트업에 투자 중

### 3-5.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 활용한 R&D, 엔지니어링 거점 진출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여건) 이공계 우대 현상, 인도공과대학(IIT) 출신 양질의 이공계 엔지니어 및 CEO 배출
- ※ (전략적 가치) 우주, 원자력, 소프트웨어, 국방 등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력 통해 세계 최초 달 탐극 착륙 성공. 한-인도 양국 협력 유망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매년 엔지니어 150만 명, MBA 졸업생 30만 명 배출, 117개 유니콘 기업 보유**
  - 매년 250만 명 학생이 컴퓨터, 전기전자, 화학, 기계공학, 금속공학을 전공으로 선택. IIT, NIT 등에서 매년 약 150만 명의 엔지니어 배출
  - 매년 30만 명 이상의 MBA 졸업생 배출, 세계 3위 규모 스타트업 생태계 보유. 2024.9월 기준 117개 유니콘 스타트업을 보유
- **인도는 훌륭한 제조업 설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수의 글로벌 팹리스 기업, 엔지니어링 센터, R&D 센터가 인도로 집중**
  - 다수의 VLSI(초고밀도집적회로) 설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설계 분야 인력의 약 20%가 인도인인 것으로 추정
  - 글로벌 기업(TI, 브로드컴, 인텔, 퀄컴, 웨스턴 디지털, 삼성, 화웨이)의 R&D 센터가 인도에 진출해 있어, IP(지적재산권), SOC(시스템온칩) 설계 등에 접근 용이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현지 R&D 센터, 엔지니어링 센터, 디자인 센터 등의 형태로 진출 후 이공계 인력을 활용한 엔지니어링 업무, 현지 맞춤형 제품·기술 개발**
  - (제조업) 다수의 현지 엔지니어 활용한 엔지니어링(설계/검증/해석) 업무 활용
  - (데이터) 고객 지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구축 및 테스트, 코딩 외주화 등
  - 다만, 글로벌 기업의 설계 아웃소싱 위주로 성장하였고, 제조업 하드웨어 생산 생태계가 다소 미흡하여 숙련 인력 기초부터 육성 필요
- **유망 품목**
  - (게임 개발) 게임 개발, 프로그래밍, 그래픽, 관련 게임 개발 아웃소싱
  - (IT 서비스) 챗봇 개발, IT 프로젝트 총괄, PM(프로젝트 매니저) 아웃소싱
  - (제조업) 3D CAD, 엔지니어링, 설계 검증, 분석, 반도체 설계 등
  - (데이터)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센터 외주 등

## □ 인도 대기기업의 반도체 설계 기업 인수 및 R&D 인력 흡수 가속화

### • 인도가 반도체 설계 허브로 떠오르면서 반도체 사업 확장을 빠르게 꺾이는 인도 대기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설계 기업 인수 가속화

- '24.1월, Infosys, 벵갈루루 소재 반도체 설계 및 임베디드 서비스 공급 기업 InSemi\* 인수(28억 루피), 클라우드 전략, AI 및 자동화 플랫폼 전략 가속화

\* '13년 설립, 직원 900명, 반도체·가전제품·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에 서비스 제공

- '24.7월, Accenture, 벵갈루루 소재 반도체 설계 서비스 공급 기업 Excelmax Technologies 인수(비용 비공개), 반도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 직원 450명, 소비자 기기, 데이터 센터, AI 및 자동차, 통신 및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컴퓨팅 플랫폼 등 맞춤형 실리콘 솔루션 제공

- '24.7월, L&T Semiconductor, 벵갈루루 소재 팹리스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SiliConch Systems\* 인수(18.3억 루피), IP, 엔지니어링 기술 및 설계 전문성 향상

\* 주요 고객은 스마트폰, PC, 자동차, IoT, 액세서리의 전력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미국 소재 장비 제조사 또는 팹리스 IC 기업

## □ 글로벌 기업의 인도 이공계 인력 활용 현황

### •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R&D 센터 및 디자인 센터

- R&D 센터(SRI-N)에서 스마트폰 장치 성능, 안정성, 사물인터넷(IoT) 기능 테스트

- 디자인 센터(Samsung Design Delhi)에서 UX, 제품, 그래픽&패키지, 서비스 디자인 등 광범위한 영역의 디자인 수행

### • 현대자동차 인도 하이데라바드 R&D 센터

- 약 1,000명 근무 중이며, 인도 현지 맞춤형 자동차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

-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하이데라바드 R&D 센터를 소형차 R&D 글로벌 허브로 육성 중

### • 삼성 E&A(전 삼성엔지니어링) 뭄바이 사무소 설립 ('24.9월)

- 플랜트 시장 공략을 위해 기존 델리 NCR에 이어 서부 뭄바이 거점 마련

- 인도 오일&가스, 정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조달, 시공, 시운전) 등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수주 추진

### •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도쿄 일렉트론, Advantest 등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 인도에 엔지니어링 지원, 마케팅 형태로 진출

- 정부 보조금 지원 활용하여 R&D 센터 설립하고, 현지의 풍부한 설계 엔지니어를 활용하여 IP(지적재산권) 확보

###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 인도 진출 형태〉

회사명 (국가)	주요 장비	인도 진출 형태
Applied Materials (미국)	증착 공정	엔지니어링 지원
ASML (네덜란드)	포토 공정	마케팅
Lam Research (미국)	식각 장비	엔지니어링 지원
도쿄 일렉트론 (일본)	검사 장비	마케팅
KLA (미국)	결합 검사	엔지니어링 지원
Advantest (일본)	검사 장비	엔지니어링 지원
ASM (네덜란드)	증착 공정	마케팅
Hitachi (일본)	식각 장비	마케팅

### 3-6. 거대 내수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선점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여건)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간접세(GST) 통합으로 14억 인도시장 상당 부문 통합
- ※ (전략적 가치) 급속한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전자상거래, OTT 등) 성장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8개 췌별로 갈라진 현금 기반 경제였으나, 통합간접세 도입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신분증 도입으로 14억 인도시장 상당 부분이 단일화되어 인도 진출 용이**
  -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 Tax, GST) 제도는 기존에 중앙정부·주정부에 난립해 있는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통합, 이를 통해 인도 내 췌 간 거래 용이
  - 인도 UPI(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도입 통한 14억 디지털 결제 인프라 통합
    - \* NPCI(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가 개발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24.9월 기준 약 550개 은행과 연결
    - \* 은행 계좌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 휴대폰 번호나 QR코드로 손쉽게 송금. Google pay, Paytm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휴대폰 번호 OTP 인증 시 즉시 사용
- **저렴한 통신비 및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14억 인구 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전자상거래(플립카트, 아마존 인디아), OTT 플랫폼(넷플릭스, 디즈니+ 핫스타, 소니 LIV) 등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
    - \* '25년, 인도 전역 스마트폰 보급률 약 75%로 전망되며, 농촌지역의 통신망 접근 확대, 선호 스마트폰 또한 보급형에서 프리미엄으로 변화

- 온라인 및 데이터 기반 소비자 구매·관심 패턴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핀테크, 배달, 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증가세
  - \* 통합 결제 시스템 통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온라인 쇼핑 활성화, 이 외에도 기 조성된 IT 인프라 활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중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핀테크, 중고 거래, 가격 비교, 구인구직, 웹툰, 원격의료 등 인도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선점**
  - 각 주정부 및 인도 중앙은행(RBI)의 금융 규제와 외국인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격 조건 등 사전검토 필요, 필요시 현지 기업 M&A 활용
  - 현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을 활용하여 인도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개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유지보수
- **유망 품목**
  - 중고 거래(생활용품, 중고차, 의류), 부동산(온라인 거래 플랫폼, 실거래가 조회), 의류 쇼핑물(편집숍, 여성 패션), IT 제품 가격 비교(스마트폰, 카메라, 가전제품 등), 구인구직\*(파트타임, 프리랜서, 직장 리뷰) 등
    - \* 현지 활발한 이직 문화 대비 파트타임 구인구직 플랫폼 및 회사 리뷰 플랫폼 부재

## □ 한국 기업 진출 성공 사례

### • 인도 저신용자 대상 소액 대출 사업으로 인도 국민 핀테크 앱으로 등극 - 밸런스 히어로

- **(진출 전 현황)** 2016년, 현지 시장에 특화된 선불제 통신료 충전 서비스 도입
- **(현지 분위기)** 신용등급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인구가 약 10억 명에 육박
- **(시장조사)** 중산층을 겨냥한 공과금 결제, 금융 서비스, 소액 대출 서비스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 수익 발생
- **(마케팅 전략)**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으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출을 제공. 앱으로 대출 신청 시 5분이면 계좌로 대출액 송금
- **(결과)** '21년 이후 흑자 전환 성공, '23년 현재 인도 핀테크 핵심 앱으로 부상. 2023년 역대 최대 매출인 845억 원과 영업이익 160억 원을 기록.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성장률은 904%
- **(시사점)** 인도 모바일 금융시장 규제가 까다롭고, 주기적으로 인도 중앙은행에 자격 심사 필요. 역설적으로 이러한 장벽이 다른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 현재 외국계 기업 중 간편 결제와 대출 서비스 자격 취득한 기업은 극소수

### 3-7.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제조업 분야 진출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여건) 인도 정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2070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것임을 공표
- ※ (전략적 가치) 인도 정부의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발전 목표량은 2030년까지 500GW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안을 위한 저장기술 수요 함께 증가 전망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구 밀도 및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저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요구 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늘리고 화석 연료 의존도 낮출 예정**
  -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연간 4.5%의 속도로 증가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25%를 차지할 전망
  - 인도, '23년 신재생에너지 잠재발전량 태양열(50.2%), 풍력(46.7%), 소수력(1.4%), 바이오매스(1.2%), 사탕수수(0.3%) 순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전력 생산 잠재력 보유
    - \* 지역별로는 사막이 많은 중서부 라자스탄과 구자라트가 각각 18.2%, 12.1%로 재생에너지 잠재발전량이 가장 크며, 마하라슈트라(11.2%)와 카르나타카(10.3%) 순
- **전기차 연간 등록 대수 약 200만 대 규모, 2·3륜 전기차 95% 차지**
  - 우리 배터리 기업, 인도 2륜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 중이며, 장기적으로 이차전지 시장 선도하는 우리 기업에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인도 진출 주요 완성차 업체의 현지 전기차 생산 확대 예정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부품 수출 확대 전망. 다만, 전기차 완성차 및 핵심 부품 관세 인상 추세
    - \* 2륜 전기차 점유율 1위 업체인 올라, 타밀나두에 생산기지 건설하여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 확대 계획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인도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할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및 전력 송·배전 인프라 분야 협력 유망**
  - 한국 제품은 품질관리 수준이 높으며, 에너지 저장 장치(ESS) 부품과 제조설비 경쟁력 보유
    - \* '23년 기준 인도 신재생에너지원이 전체 전력 발전 설비 용량의 약 30%를 차지함에도 효율적 저장시설 부족으로 실제 전력 발전량은 10% 수준
- **단순 가격경쟁을 피하고 발전용 기자재 수명·효율 등 품질로 접근하여 전 세계 태양광·풍력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의 차별화**
  - 여전히 저가를 선호하는 인도 시장의 특성이 남아 있지만, 높은 품질과 시장 친화적인 제품으로 차별화할 필요

- **인도 내 전기차 부품 및 이차전지 공장 설립 고려하되, 필요시 글로벌 완성차 법인과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공급망 확보**
  - 인도는 원자재 및 제조 시설의 부족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 생산 보조금 등을 통해 국내 생산 촉진 노력
    - \* 인도, 철광석·알루미늄·아연 풍부하나 리튬·코발트·니켈 등 수입의존도 100% 육박
  - 현지 전기차 제조사, 가격경쟁력 확보 위해 인도 내에서 배터리 제조가 가능한 현지 기업을 찾거나 직접 생산시설을 건설 중
  -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이 매장된 광산 블록 경매 절차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전기차 부품 및 이차전지 원재료 안정적 확보 방안 강구
- **유망 품목**
  -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저장 장치(ESS) 부품 및 제조설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계·시공·운영 솔루션
  - (발전용 기자재)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기자재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품목) 스마트 지붕 솔루션, 고효율 단열재, 난방·환기·공기조화 시스템 등 친환경 기자재
  -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품목) 산업용 미세먼지 포집 장치 및 기술,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 (이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팩, 배터리 셀,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 (전기차) 전기차 부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동력전달장치, 충전 인프라, 반도체, 5G 통신 안테나 등

### 3-8. 사회간접자본 및 도시 개발 프로젝트 참여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여건) 열악한 인프라 환경 극복을 위해 인프라 부흥 계획(PM Gati Shakti) 시행, 인도의 도시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어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들이 인구의 40%를 수용하고 GDP에 75%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전략적 가치) 세계의 제조 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한 디지털, 운송 인프라 확충 진행 중. 특히 도로, 철도 등 인도의 인프라 수요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한 기회 포착 가능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4.7월, 2024/25 인도 연방 예산안 발표 시 인프라 분야에 GDP의 3.4%에 달하는 약 1,340억 달러를 배정하며 전폭적인 인프라 개발 진행 중

#### 〈2024/25 인도 정부 연방 예산안 - 인프라 및 도시 개발 주요 내용〉

기업명	내용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의 3.4%에 달하는 11.11조 루피(약 1,340억 달러)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 배정</li> <li>- 주(州)정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5조 루피(약 180억 달러) 규모의 무이자 대출 예산 할당</li> <li>- VGF(Viability Gap Funding: 정부가 건설 및 운영보조금 등 금융 지원) 통해 민간 인프라 개발 지원</li> </ul>
도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5년간 10억 루피(약 1,200만 달러)를 투자해 빈민층과 중산층 가정을 위한 도시 주택 문제 해결</li> <li>- 10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상수도, 하수 처리 및 고형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와 서비스 추진 예정</li> </ul>

자료: 인도 재무부

- 인도의 도시 개발 정책은 선진국의 스마트시티와 달리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전반적인 기초 인프라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스마트시티 미션) 인도 정부가 전국에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대표적인 도시 개발 정책
    - \* 인도의 빈민가 문제, 대중교통 부족, 상하수도 처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AMRUT 2.0) 모든 가정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하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빈곤층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함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 프로젝트 정보의 주기적 확인, 전략적 파트너 선정 및 협력을 통한 수주 확대

- 인도 전역의 프로젝트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지속 모니터링
-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원팀코리아(정부 부처, 공공기업, 민간기업)로 참여하여 입찰 참여할 경우 사전적격성 심사 및 낙찰 확률 증가

\* IIG(India Investment Grid), 인도 정부 프로젝트 온라인 대시보드

### • 수주 경험이 있는 현지 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 고려

- 노무, 행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관 업무를 수행할 파트너사와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 기회 모색
- 한국의 감리·설계 등 전문적 역량과 기술적 장점을 살리되 현지 프로젝트 상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업체를 협력업체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 인도에서의 공항 건설 수주를 위해 현지의 다양한 공항 건설 수주 경험이 있는 인도 GMR 社와 협력하여 현지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도 방법

### • 컨소시엄 형태로 기업들이 뭉쳐서 타깃 프로젝트별로 공략하는 것이 타당, 국토부 자원 지원사업 활용, KO TRA에서 주관 발주처 네트워킹 행사 참여

- 공공기관, 정부 부처, 민간업체 등이 포함된 원팀코리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중앙·주정부와 네트워킹,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정보 수집 필요
- 한국 스마트시티는 신도시 개발부터 기존 도시 재생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수요 대응에 유리

### • 유망 품목

- (전자정부) 사이버 보안,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온라인 학적 기록 발급
- (인프라)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철도·지하철·공항 건설 수주 및 운영, 항만개발 관련 각종 설비 및 항만 서비스 시스템, 감리·설계 등
- (건설) 건설기계·중장비, 시멘트
- (통신) 안테나, 광섬유, 5G 무선 통신기기
- (물류) 콜드체인, 물류센터 등 인프라
- 수처리(우천 시 수위 조절), 폐기물 처리(매립시설), 공공주택 건설, 보안 시스템(CCTV) 등
- 한국형 스마트시티(인천경제자유구역, 마곡지구 등) 성공 노하우 통한 프로젝트 수주

□ 디지털 인프라 분야 진출 유망 품목 및 진출전략

- **(맞춤형 개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기술을 활용하여 인도 정부의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전자 정부 솔루션 개발**
  - 인도 정부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현지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지리 정보 시스템) 국내 기업의 고도화된 GIS 기술을 통해 인도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및 국토 인프라 개발을 위한 상세한 지리정보 데이터 생성에 기여**
  - 도시 개발, 스마트시티, 재난 관리, 농업 관리, 환경 관리, 공중 보건, 교통 및 물류, 부동산 및 인프라 등 인도 전반적인 국토 및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인도에는 키오스크형 무인 민원 발급 창구 보급이 매우 미미.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제품 납품 기회 타진 필요**
  - 인도의 지하철 인프라는 아직도 개발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특히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정부 발급 문서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이 장기적으로 유망
- **(온라인 학적 기록 발급) 韓 정부 시스템의 경우 모바일로 초·중·고 생활기록부 및 학업성적증명서 발급이 즉시 가능하므로 이러한 모델 차별화 가능**
  - 인도 정부는 모든 국민의 학력 기록을 한 곳에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나,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학생 기록 전자 관리 시스템 미미

□ 스마트시티 각 분야별 협력이 유망한 현지 주요 기업

• 공공 도로 IT 서비스

주요 기업		
기업명	솔루션	주요 고객
Ola Electric Mobility	전기 스쿠터	차량 사용자
Blu Smart Mobility	순수 전기차 택시 호출 앱	통근자,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Blue Dart Express	스마트 물류 인프라 (실시간 추적 및 효율적인 배송 관리)	이커머스 기업, 소매 체인
Allcargo Logistics	스마트 화물 운송 (효율적인 해상·항공·육상 운송 및 창고·유통 서비스)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 친환경 전력 발전

주요 기업		
기업명	솔루션	주요 고객
Tata Power	전력 계량 인프라, 배전 자동화	도시 및 상업지구 거주자
Adani Group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
Reliance Industries Limited	청정 에너지 솔루션 통합	도시 및 농촌 거주자
Larsen & Toubro (L&T)	스마트 빌딩, ICT 솔루션 등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 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ITMS, Intelligent Traffic Management System)

주요 기업		
기업명	솔루션	주요 고객
TCS	스마트 보안 및 감시 시스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Tech Mahindra	감시 시스템, 명령 및 제어 센터, 분석 기반 안전 솔루션	도시 개발 업체, 공공기관
HCL Technologies	지능형 감시 및 보안 시스템	도시 개발 업체, 공공기관
L&T	통합 명령 및 제어 센터, 비디오 감시, 스마트 가로등	도시 개발 업체, 공공기관
Honeywell India	지능형 감시, 비상 대응 시스템, 통합 명령 및 제어 센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 3-9. 보호무역, 행정 리스크 등 애로사항에는 민관 공동 대응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시장 여건) 인도 중앙정부·주정부의 행정 복잡성에 따른 외국기업 경영 애로 다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입 규제, 통관 분쟁, 추가 관세 추징 등 기업 리스크 다수
- ※ (전략적 가치) 인도는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이지만 기업하기가 어려운 국가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진출 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민관이 합동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며 인도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 (비관세 장벽) 최근 BIS\* 인증 대상 품목 확대\*\*와 동시에 취득·갱신 절차가 지연되는 등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 품질관리 인증 주관 기관으로 대상 품목의 경우 인도 수입·유통을 위해 제조자가 BIS 인증 취득 및 인증마크 표기 필수

\*\* 244개 품목('20) → 353개 품목('21) → 424개 품목('22) → 625개 품목('23) → 763개 품목('24.10월)

- 명확한 이유 없이 취득·갱신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인증 지연은 통관 지연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인도 내 고객사에게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인증 취득 소요기간(6개월~1년)이 점점 늘어나고, 인증 갱신 지연에 따른 통관 애로 발생

- 수입 물품이 BIS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관 요청 시 BIS 인증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NOC(No Objection Certificate) 취득·제출 필요

\* 특히 철강 제품은 '23.10월부터, BIS 미대상 품목일 경우 철강부로부터 NOC 수취가 의무화되었으나, '24.9월 중순 이후 NOC 발급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 • (한-인도 CEPA 활용 애로) '20.9월 인도 정부 원산지 기준 관리 강화(CAROTAR 2020\*) 시행에 따른 추가 서류(FORM-I) 요구로 영업 기밀 유출 위험, 통관 지연 발생

- 인도 정부는 대외 무역적자 심화로 인해 2020년 9월부터 CEPA 및 FTA 원산지 규정 적용을 엄격히 강화하는 '카로타(CAROTAR) 2020'을 시행

\*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 우리 기업이 인도로 수출 시 한-인도 CEP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원산지증명서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음

\*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만으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으나, 인도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추가 서류(Form I)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출자 부담 가중

- **(제조업 인프라 미흡) 인도 정부의 인프라 부흥 계획\*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장에 잦은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수질 문제로 미세 공정 제품 생산 불가**

\* '24.7월, 2024/25 인도 연방 예산안 발표 시 인프라 분야에 GDP의 3.4%에 달하는 약 1,340억 달러를 배정하며 전폭적인 인프라 개발 진행 중

- 이 외에도 미흡한 배수시설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도로 침수, 비포장도로·조악한 도로 상태 등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 및 지연 사태는 여전한 애로

- 정전 및 수질 문제로 일부 기업의 경우 인도 내 투자 계획 재검토 및 축소

\* 특히 예고 없는 잦은 정전·단수 등은 노이다, 푸네, 첸나이, 아난타푸르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제조시설 진출 지역의 공통 애로사항

### □ 진출전략

-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되,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애로사항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이슈 발생 시 초기부터 대사관, KOTRA, 인베스트인디아, 코참 등 현지 민관 협의체·간담회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 애로사항 적시 공유 및 공동 대응

-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표출**

- 인도 무역구제총국의 조사 개시, 공청회, 조사 결과 고시, 관세 부과 결정, 일몰 재심 개시 등 주요 절차 등에 적절하게 의견 표출하여 불이익 없도록 대응

- **인도 무역구제총국·대외무역총국 등 인도 정부 고시(Notification) 상시 모니터링 및 언론 동향 파악 통한 수입 규제 움직임 사전 포착**

- 반덤핑·세이프가드와 달리, 대외무역총국이 시행하는 수입 제한 조치는 의견수렴, 사전 고지 없이 '즉시' 시행하는 경우 다수

- 대외무역총국은 국내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품목 지정

\* 예시) 저가 스크루·후크 제품 수입 금지('24.1.3), 합성 편직물 수입 최저가 도입('24.3.16) 등

품목명 1		
치과 교정 제품 (브라켓, 와이어, 나사 등)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아 교정 제품은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 가처분 소득 증가, 치과 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치과 제품의 발전으로 인해 성장</li> <li>• 또한 미용 치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임플란트 및 치아 교정 등의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li> <li>• 2024년 3월, 인도 정부는 국가치과위원회법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인도 내 치과 교육 및 직업 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인도 치아 관리 용품 시장은 18억 9천만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간 성장률은 3.39%로 예상</li> <li>• 인도 치과 소모품 시장은 2023년 2억 2,78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연평균 9.98% 성장률로 2032년까지 5억 4,419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치과시장의 약 95%가 개인 치과 의사로 구성</li> <li>• 인도의 고급 치과 장비 및 재료 분야에서 수입이 늘어 2022년 4,300만 달러에서 2023년 5,100만 달러로 증가</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제품에는 CDSCO(인도 중앙의약품표준통제기구) 등록이 필요하며, 국내업체는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CDSCO 등록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나누기도 함</li> </ul>
품목명 2		
전기 중장비· 건설장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인도 정부는 207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전기 건설 장비는 기존의 디젤 동력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음</li> <li>• 인도 건설 장비 시장 규모는 2029년에는 109억 9천만</li> <li>•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건설 장비 산업은 도로 건설 인프라 개선, 도시화율 증가, 인프라 사업의 투자 증가로 인도 건설 장비 성장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li> <li>• 인도는 대기 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과 소음 수준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첨단 배터리 기술로 구동되는 전기 건설 장비 개발을 확대(전기 굴삭기, 불도저, 로더 및 기타 기계 등)</li> <li>• 인도는 건설장비와 유압 구성 부품, 전기 배터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주요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독일</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일본 히타치는 전기 굴삭기, 전기 덤프트럭에 도입</li> <li>• 2024년 푸젠성 남중국기계유한공사는 인산염 배터리로 작동되는 휠로더, 굴삭기, 지게차, 창고 장비(리치 트럭, 굴절식 지게차, BOPT 등), 고성능 전기건설 장비 등을 인도에 도입</li> <li>• JCB와 CNH Industrial은 인도에 미니 전기 굴삭기 출시</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정부는 전기 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빠른 채택 및 제조(FAME) 정책 등을 실행하고 있음</li> <li>• 건설 활동이 활발한 델리, 뭄바이와 같은 주요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제조/조립 기업과 협력하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전기 장비 생산 가능</li> </ul>

품목명 3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는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 TV,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데, 이 품목들의 수요는 2028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예정</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정부가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세미콘 인디아 프로그램 승인</li> <li>• 모디 총리는 인도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 업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이라 약속</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론이 '23.9월 반도체 ATMP 공장을 구자라트에 착공하고, '25년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전망</li> <li>• 스마트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집적회로 시장의 빠른 성장 예상. 모바일 제조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측</li> <li>• 인도 집적회로 시장의 주요 공급자는 삼성, SK하이닉스, 인텔, 퀄컴, TSMC,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도시바 등</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에서 판매되는 IT/가전제품의 추이를 고려해 수요에 맞는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수출이 이상적</li> <li>• 태블릿, 스마트폰, 프리미엄 TV와 같은 가전제품과 제조에 필요한 집적회로 수요 지속 증가세</li> </ul>
품목명 4		
반도체 장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디 총리의 외국 기업 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반도체 수입이 지난 3년간 두 배로 증가</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인도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32억 달러, 2030년에는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는 연평균 성장률 17.1%에 해당함</li> <li>• 인도 정부는 2024년 3개의 새로운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을 승인했으며, 100%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설계와 R&amp;D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li> <li>• 인도의 주요 반도체 제조 허브로 구자라트, 마디아프라데시, 오디샤 등이 선정됨</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cron Technology는 구자라트에 8억 달러 투자하여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 설립</li> <li>• Applied Materials는 벵갈루루에 협력 공학 센터 설립 예정</li> <li>• AMD는 IIT Bombay와 협력하여 SNN 칩 개발을 지원</li> <li>• 삼성전자는 벵갈루루에 반도체 R&amp;D 시설을 개소</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정부의 Production Linked Incentives, Modified Special Incentive Package Scheme 등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li> </ul>
품목명 5		
냉동식품, 간편조리식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냉동식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4년부터 '32년까지 14%로 매년 성장하여 2032년에는 67억 3,337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li> <li>• 인도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편리한 즉석조리식품(ready-to-eat(RTE))이 글로벌 음식 트렌드로 주목받으면서 인도 내에서 냉동식품의 수요가 증가</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채, 과일로 만든 냉동 간식은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냉동 육류 제품 또한 수요 증가</li> <li>• 특히 18~30세 그룹이 인도의 냉동식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바쁜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편리함과 시간 절약을 추구하고 새로운 음식과 제품을 시도해보는 경향이 냉동식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cCain India Pvt Limited는 25~45세 워킹맘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방부제 없는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냉동 즉석조리식품, 주요 식료품 배달 애플리케이션 (Big Basket과 Blinkit)을 통해 온라인 상품 판매 중</li> <li>Godrej Tyson Foods Ltd.(GTFL)는 주로 신선한 가금류와 채식주의 제품을 주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남인도와 서인도에서 인기가 높음</li> <li>롯데웰푸드는 2017년 인도 자회사 하브모어 지분을 100% 인수하여 인도의 아이스크림 시장에 진출</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활용) 수산물 섹터에 대한 콜드체인 인프라의 수요가 가장 높아,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냉동 수산물 섹터 운영을 위한 3,904개의 제빙 공장, 냉장보관시설, 냉동/냉장 차량 구축을 계획 중에 있어, 이를 활용한 유통체계 구축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li> <li>(기존 냉동식품 수입사와 파트너십) 특히 현지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는 이국적인 과일, 야채, 기타 제품들은 현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냉동식품들을 기존 수입 바이어들에게 제공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그들의 유통체계 라인(제품 보관, 배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등)을 통해 인도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li> </ul>
품목명 6		
정수기 및 관련 부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는 대표적 물 부족 국가이며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국가 인프라가 부족한 편</li> <li>대부분의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기를 필수로 설치하고 있음. 부유층의 경우 정수기를 2단으로 설치하는 등 수도물에 대한 불신으로 정수기 수요가 높음</li> <li>또한 정수기의 경우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수반되어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 관련 제품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 인도표준원) 인증이 필수이며 인도 시장에 맞게 제품 개발이 필요(Hydrogen Water 개발)</li> <li>구자라트 간디나가르의 WAPTAG(수처리 전시회)를 비롯하여 가정용 산업용 정수기 관련한 전시회가 다수 있으며, 각 지역별 수처리 협회가 주관</li> <li>인도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 수처리 제품은 인도에서 인기가 많으며 수소수, 알칼리수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인도 시장 진입 추진 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가정용 정수기 시장은 Eureka(인도, 45%), Kent(인도 28%), LG(15%), Unilever(영국, 8%) 등이 시장을 점유</li> <li>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며, 예전에는 사치품이라는 생각에서 최근에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다양한 기능과 방식의 제품들이 시장에 소개</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중소기업인 B사의 경우 10년 이상 한 유통망과의 협력으로 브랜드를 성장시켜 2019년 10만 달러 규모이던 인도 수출을 2023년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거둠. B사는 우수한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 성장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음</li> <li>인도의 14억 인구 및 다양한 고객층을 감안하여 고가/저가 제품군의 마케팅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을 추천</li> </ul>
품목명 7		
벽지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의 중산층 증가와 평균소득 증가에 따라 가정 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홈파티 문화에 따라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강조되고 있음</li> <li>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트렌디한 홈데코를 위해 벽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li> <li>한국의 벽지는 우수한 디자인과 고품질로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비롯해 홈데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알려짐</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ista에 따르면 인도의 홈데코 시장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8.78% 성장할 전망</li> <li>• 인도의 벽지 수입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233%, 2022년 258%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 후 2023년 -47%로 수요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2020년 대비 530%, 2021년 대비 89% 증가)</li> <li>•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IKEA는 2018년 하이데라바드에 첫 매장 오픈 이후 현재 인도 내에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푸네, 첸나이, 델리 NCR 등으로 확장을 계획 중</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마존 인디아는 현지에서 수입 벽지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창구로 디자인별, 사이즈별, 기능별 벽지를 판매하고 있음</li> <li>• 인도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 중국산 벽지가 2020년 수입 벽지의 69.9%, 2023년 18.1% 점유율을 보였으며, 그 외 다양한 국가의 제품이 홍콩(41.3%), UAE(30.7%)를 통해 수입되는 것으로 보임</li> <li>• 한국산 벽지는 2020년 175만 USD로 13.4% 점유율을 보였으며, 2023년 기준 430만 USD로 5.2% 점유율을 보임</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뛰어난 제품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홍보 및 영업 확대가 중요</li> </ul>
품목명 8		
고급 비닐 타일 LVT (Luxury Vinyl Tile)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는 경제 성장과 함께 사무 공간 및 국제학교 등 공용 시설에 대한 고급화 수요가 증가 중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산업·상업용 바닥재 관련 프로젝트 규모가 증가하면서 산업이 크게 성장</li> <li>• 주택 부문에서도 내구성이 좋고 비용이 저렴한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비닐 바닥재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소재 개발, 첨단 기술의 접목 및 특수 기계의 개발 및 도입으로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주요 브랜드(5~6개)가 시장 주도 중</li> <li>•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로, 제조업체들은 재활용 소재,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이 적은 소재 등 친환경적인 제품 생산에 관심이 많은 편</li> <li>• 설치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설치 시스템(click-lock, loose-lay 등) 도입이 활발해지는 추세</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뛰어난 품질과 혁신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접목 등의 강점을 가진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li> <li>• 중국, 한국, 미국산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술력과 많은 제품군을 강점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추세</li> <li>• 한편, 외국 브랜드의 강세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과감한 설비 투자와 고품질의 제품 생산력으로 인도 현지 기업 또한 시장에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음</li> <li>• 주요 인도 기업: Responsive Industries(RIL), Inovar Floors India, Polyflor India, Forbo Flooring India, Puneet India</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VT 제품에는 BIS 등의 필수 인증이 없는 상태로 다른 품목 대비 인도 시장 접근성이 높은 편</li> <li>• 이미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경쟁 중인 시장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능과 친환경 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마케팅 필요</li> <li>• 현지 유통·소매업체와의 네트워크 마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층 확보가 필수</li> <li>• 최근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의 LVT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가되어 수입 시장 경쟁이 다소 약화된 점은 한국 기업에게 시장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li> </ul>

품목명 9	
산업용 AI 로봇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역량은 AI 산업 발전에도 기여</li> <li>•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 인공지능이 탑재된 신기술들이 빠르게 인도 공장에 도입 중</li> <li>• 인도의 인더스트리 4.0, 즉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장기적으로 공장 자동화 수요 급증</li> </ul>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산업용 AI 로봇 시장은 2023년에 1억 625만 달러, 2030년에는 4억 2,9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li> <li>• 약 15년 전, 한 해 생산되는 인도의 산업용 로봇은 연간 100대였으나 현재 매년 5,000~6,000대의 로봇이 제작</li> <li>• 자재 취급 및 제조 공정의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머신러닝, 클라우드, 센서 기술의 활용, 자동화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직원 교육 등 관련 산업 발전</li> </ul>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melabds, Queppelin, DiFACTO Robotics, Kuka Robotics Private Limited, ABB, Gridbots 등이 인도의 우수 AI 로봇 업체</li> <li>• 자동차/부품, 제약 기업 공장 자동화 집중 투자 중</li> </ul>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에 제조공장 설립 시 한국산 산업용 로봇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하되, 나아가 협동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공장 자동화용 산업용 AI 로봇 납품</li> <li>• AI 로봇을 인도 농업(농경지 탐사, 잡초 관리 및 수확 현황 기록), 축산업(달걀 수집 등의 반복적인 작업), 유통업(식품 포장, 로지스틱스)에 적용하여 활용</li> </ul>
품목명 10	
섬유기계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23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섬유기계 수입은 전년 대비 32%로 대폭 증가</li> <li>• 인도의 섬유기계 수입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56%)이며 일본(18.5%)과 벨기에(11.4%) 순. 한국은 12위(1%)로 점유율은 미비하나 수입량이 지속 증가</li> </ul>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는 전통적 천연섬유 강국으로, 최근 인조섬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계 구매 수요 증가</li> <li>• 세계 최대 규모로 섬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오래된 기계 사용 중이며,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 및 자동화된 섬유기계 도입이 필요한 상황</li> <li>• 과거에는 가격이 저렴한 중고 기계의 판매가 눈에 띄었지만, 자동화 및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li> </ul>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분야에 중사 중인 기업은 기계/장비 거래업, 관련 공식 딜러 및 대리점 등 약 3,250개로 확인</li> <li>• 주요 기업은 Lakshmi Machine Works Ltd., Sulzer India Ltd., A.T.E. Enterprises Private Limited 등으로 시장 경쟁은 치열한 편</li> <li>• 주로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섬유기계 산업이 발달한 국가의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경쟁 중</li> </ul>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화 고품질 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인조섬유 기계 생산 기술력을 강조하되,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필요</li> </ul>
품목명 11	
열차 화물칸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가 넓은 인도는 선박과 항공보다는 철도가 물류 이동에 더욱 경제적이며 널리 활용</li> <li>• 인도 중앙정부는 철도망 확대에 역대 최고의 예산안을 발표</li> <li>• 인도 중앙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철도 확충에 2조 4,000억 인도 루피를 배정</li> <li>• 인도 2023/24 회계연도 철도 확충 예산은 역대 최고치로, 2022/23 회계연도와 2013/14 회계연도 대비 각각 4배, 9배</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인도의 철강 산업은 지난 10년간 생산량은 75%, 수요는 80% 증가</li> <li>• 2024/25 회계연도에도 인도 철강 수요는 연평균 성장률 6.3%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li> <li>• 현재 인도 철강 업계는 약 15% 정도의 화물칸 부족을 겪고 있음</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가 화물칸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독일, 미국, 이탈리아</li> <li>• 자국 제조업체로는 Tata Steel, TexMaco Rail and Engineering Ltd., Titagar Rail Systems 등이 있음</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정부의 철도망 확대 및 철도 인프라 현대화에 발맞춰 현지 수요 다수이나, 한국에서 인도로의 화물칸 수출은 많지 않아 성장의 여지가 많음</li> <li>• 동남아는 물론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한국 철도차량 수출이 활발한바 인도 수주 프로젝트에도 참여</li> </ul>
품목명 12		
문구용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는 약 2.0명 출산율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성장, 영유아 및 청년 교육 확대에 따른 학업용 문구류 및 사무용 문구류 판매 증가</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문구용품 시장 매출은 2018~24 회계연도 동안 10.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li> <li>• Rashtriya Madhyamik Shiksha Abhiyan(RMSA) 및 Sarva Shiksha Abhiyan(SSA)과 같은 정부의 교육 시스템 강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문구용품 시장은 상당한 발전</li> <li>• 인도 교육기관 및 학부모는 친환경적으로 제조된 제품 선호 추세</li> <li>• 다만,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기능 및 디자인을 갖춘 제품 수요 증가. 감각적이거나 독특한 패턴의 제품 수요 증가</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문구용품 시장 주요 기업으로는 ITC Ltd, Doms Industries, BIC Cello, Kokuyo Camlin, Hindustan Pencils, The West Coast Paper Mills, Navneet Education, Flair, Sundaram Multi Pap, J K Paper, Linc Pens, Plastic 등</li> <li>• 문구용품은 주로 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며, 주요 업체로는 Crossword bookstores, Books and Beyond, Cartoleria, Office 1 Superstore, Depot, Odyssey, Write Site, Luxor, Office Linc 등이 있음</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을 통한 문구용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므로, 온라인 유통망 입점 통한 문구용품 판매 유망</li> </ul>
품목명 13		
공기청정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이 많고, 자동차 매연 등 각종 대기오염 발생 요인이 많아, 전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20곳 중 절반이 위치</li> <li>• 대기질 악화로 인해 천식 및 기관지염과 같은 질환자가 많고, 코로나19 등 대기 매개 질병 증가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지속 증가세</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공기청정기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억 5,720만 달러로 2023~2030년 연평균 28%의 성장 예상</li> <li>• 수입시장의 경우 2022년에 5,300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28% 수준. 한국은 수입시장의 23%를 점유하여 2위를 차지</li> <li>• 최근에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기업들은 Daikin Air Conditioning, Dyson Technology, Philips, Honeywell, Panasonic Life Solution, Havells, Samsung 등이며 새로운 기능을 가진 고성능 제품을 지속 출시 중</li> <li>• 현지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보유</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에이전트 또는 파트너와 협력을 통하거나, 현지 마케팅 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li> <li>• 현지 생산체계를 갖춘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제품 차별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li> </ul>
품목명 14		
음료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2023~2027년 연평균 음료시장 성장률은 18.69%에 달할 것으로 전망</li> <li>• 새로운 맛과 글로벌 음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non알코올 음료 시장 매출은 2023년 말 기준, 167억 4천만 달러 달성 예상</li> <li>• 건강하고 기능적인 음료 수요 증가</li> <li>• non알코올 음료 시장 중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부문은 청량음료 부문으로 시장 규모 88억 달러</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진출에 성공한 아시아 음료수 브랜드로는 Mogu Mogu, OKF 등이 있음</li> <li>• 건강기능성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Dabur Limited 같은 주요 업체는 Dabur Giloy Neem Juice, Dabur Amla Juice, Dabur's ImuDab Syrup과 같은 면역력 증진 음료를 선보임</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적으로 여름이 길고,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승함에 따라 음료수 수요 매년 증가세</li> <li>• 인도 현지 맞춤형 마케팅 및 인도 연예인을 활용한 광고 활동 전개 통해 인도 청량음료 시장 진출</li> <li>• 도시 집중 현상 심화에 따른 바쁜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웰빙 건강음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향상에 따른 여성용 건강음료 출시 등도 유망</li> </ul>

품목명 1		
온라인 게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발전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부상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 급성장 중</li> <li>• 스마트폰, 고속 인터넷 보급의 급격한 증가로 온라인 게임 접근 가능 인구 또한 가파른 상승 추세</li> <li>• 인도의 게임 인구는 30%로 중국(53%), 미국(56%)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그만큼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게임시장의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게임 이용자는 4억 2,500만 명, 게임 앱 다운로드 수는 95억 건을 기록</li> <li>• 인도의 게임 이용자 수와 앱 다운로드 수는 2020년 대비 2023년 28%의 성장률을 보임</li> <li>• 이는 게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기인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직간접 고용 기회가 지속 창출되고 있음</li> <li>•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로 급부상 중으로 파트너십 체결, 인수합병, 스타트업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온라인 게임 시장은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산업인 만큼 수많은 기업의 진입으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음</li> <li>• 특히 스포츠 분야 게임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며, 주요 기업으로는 Dream11, Mobile Premier League(MPL), Paytm First Games가 있음</li> <li>• 포커, 러미 및 각종 기술 기반의 게임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각 기업들은 보다 안전한 결제 방식, 게임 내 보너스 제공 행사 등을 활발히 진행 중</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스마트폰 가격의 하락, 젊은 인구 비중(인구의 40% 차지)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시장 규모는 2028년 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li> <li>• 인도 게이머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한 마케팅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게임 개발로 시장 진출 기회 다대</li> <li>• 특히 한국의 강점 분야인 e스포츠를 접목한 게임 분야 진출이 유망하며, 인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출이 점유율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li> </ul>
품목명 2		
프랜차이즈 브랜드 (호텔·카페·식당 등)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증가와 중산층 증가로 생활소비재 전반에 걸쳐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의 인도 진출도 증가</li> <li>• 온라인 구매와 배달 서비스의 정착으로 소비자들이 접근성 좋고 인지도 높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보임</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T Retail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랜차이즈 시장이며, 향후 5년간 1,400억~1,50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li> <li>•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내 프랜차이즈 사업 관심 업종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레저 부문, 그다음으로 식음료업을 꼽음</li> <li>• 현재 틈새시장은 고속도로 인접 매장으로 프랜차이즈 호텔, 카페, 식당 등이 유망</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기준 인도 전역에서 4,6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약 20만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53% 이상이 복수 매장을 운영하고, 35%가 식음료업으로 알려짐</li> <li>• 인도 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Reliance, Tata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보유한 대형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차세대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 중</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브랜드의 인도 진출 시 직접 단독 진출보다는 인도 현지에서 해당 품목의 지역별·형태별 매장 운영 경험을 가진 파트너와의 협업이 중요함</li> <li>• 소비자 행태와 시장 특성 파악을 위해 초기에는 멀티 브랜드를 취급하는 인도 현지 브랜드를 통한 진출 또는 대형 쇼핑몰 내 팝업 스토어 운영을 권장함</li> </ul>
품목명 3		
한식당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 및 유튜브를 통한 한국 드라마, K-팝 인기 상승 지속</li> <li>• 인도에서의 한국 식음료(라면, 냉면 등)에 대한 인기가 동반 상승하여 한식에 대한 인식 증가</li> <li>• 쌀, 밀가루, 채소, 고기 등 식재료와 참기름, 고추, 후추, 간장 등의 향신료는 인도에서도 확보가 용이 (채식주의 인구는 비빔밥, 라면 등 선호)</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 서비스 시장에서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Full Service Restaurant, FSR)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은 소득이 높고 한식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인도의 1선 도시에서 인기가 있음(벵갈루루, 델리, 첸나이, 뭄바이 등 주요 한식당)</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현재 인도 주요 대도시에 소수의 한식당 운영 중, 한류의 확산으로 2, 3선 도시에서도 한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li> <li>• 인도 대도시에 한식당을 개업하되, 장기적으로 인도 지방 도시에도 한식당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투자 가능</li> <li>• 가공식품 및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 증으로, 가공 한식 판매점 또는 배달 음식 전문식당 개업도 고려</li> </ul>
품목명 4		
헬스케어 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의료 부문은 고용 및 수익성 측면에서 급속히 성장 중</li> <li>• 인도의 의료비용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의료 인력이 풍부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li> <li>• 낮은 임상 연구비용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 중심지로 부상</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기준 인도 의료관광 시장은 77억 달러 규모이며 2029년까지 1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li> <li>• 인도의 공공의료 지출은 2023년 GDP의 2.1%에서 2025년 2.5%로 확대될 계획</li> <li>• 의료기기, 제약 및 병원 부문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li> <li>•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e-의료 비자 제도를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ollo Hospitals, Fortis Healthcare, Narayana Health, Manipal Hospitals 등 주요 기업들이 인도의 의료 시장에서 활동 중</li> <li>• 2023년 5월 Temasek의 Manipal Health Enterprises에 대한 20억 달러 투자, 2023년 9월 Nirma의 Glenmark Life Sciences 인수 등 사례</li> <li>• DocPlix와 같은 헬스테크 스타트업의 등장과 IIT Bombay와 Blockchain for Impact(BFI)의 투자 협력 등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관광: 인도의 낮은 의료비용을 활용해 서구 국가들과 협력하여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유망</li> <li>• 원격의료: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원격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음</li> <li>• 제약 및 의료기기: 인도의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은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 하에 성장 중이므로, 현지 제조 및 수출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li> <li>• 공공-민간 파트너십: 정부의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참여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li> </ul>

품목명 5		
K-팝 콘서트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이후 K-팝을 향한 인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li> <li>•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인도 내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li> <li>• 인도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K-팝 콘서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라이브 콘서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1,000억 루피(약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보이밴드 Backstreet Boys가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인도를 방문해 뭄바이와 뉴델리에서 공연을 펼침</li> <li>• 포스트 말론, 콜드플레이, Jay Z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인도의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연 바 있음</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라이브 이벤트 매출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K-팝의 특성을 고려한 장소 선정 및 마케팅 필요</li> <li>• Narendra Modi Stadium(13만 4천 명), Jawaharlal Nehru Stadium(6만 254명), 뭄바이의 MMRDA Ground(8만 명) 등 인도 각지의 다양한 규모의 콘서트 장소를 통해 공연 가능</li> <li>• 인도 최고 인기 스포츠 크리켓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것은 현지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li> </ul>
품목명 6		
사이버 보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는 IT 및 SW 개발 산업이 발전된 국가로 사이버 보안 혁신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li> <li>• 사이버 보안 산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3%를 기록하여 2029년에는 시장 규모가 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주요 IT 허브는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첸나이이며, 이들 남인도 지역에 인도의 IT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사이버 보안 산업에 있어서도 남인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음</li> <li>•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 추진은 인도의 사이버 보안 시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ta Consultancy Services(TCS)는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서비스, AI에 중점을 두고 고객의 요구에 맞춘 혁신을 강조함. 시장 조사 기관 Gartner Magic Quadrant에 따르면 TCS는 인도에서 Public Cloud IT Transformation Services(퍼블릭 클라우드 IT 혁신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음</li> <li>• Wipro는 인도에서 가장 큰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로, 사이버 보안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주요 제품으로 위협 관리 플랫폼, 보안 운영 센터, 데이터 보호 솔루션 등을 제공 및 서비스하고 있음</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에 맞는 사이버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특히 인도 시장에서는 인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언어 지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로컬화된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li> </ul>
품목명 7		
TOPIK 애플리케이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2,274명이 응시한 TOPIK은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해 2023년 한 해 50만 명이 응시</li> <li>• 한국에서는 연 6회, 해외에서는 지역에 따라 2~5회 시행되고 있으며 인도는 연 2회 시행</li> <li>• 인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자 하는 인도인 증가세</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치솟으며 더 많은 인도인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함</li> <li>• 해당 카테고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29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18% 이상일 것으로 전망</li> <li>• 통번역가는 인도에서 수입이 높은 직업 중 하나이며, 신입 통번역가의 월급은 240달러에서 시작</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에는 TOPIK 학습을 위한 마땅한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 않음</li> <li>• 델리대학교,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주인도 한국문화원, 자르칸드대학교, 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 교육 중</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법 자료, 글쓰기 강좌 동영상 등이 있는 TOPIK 전용 애플리케이션 필요</li> <li>•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은 한국인 채용이 힘들다는 의견, 한국어 구사 인도인 구인 또한 애로를 겪고 있음</li> <li>• 글로벌 취업 기회, 높은 연봉 등을 앞세워 TOPIK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한국어 학습 유용성 강조</li> </ul>
품목명 8		
웹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웹툰에 대한 수요 존재</li> <li>• 일일 6만~10만의 웹툰 이용자로 기존 수요층이 두터움</li> <li>•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원작이 웹툰인 경우가 많아 독자층이 확대되고 있음</li> </ul>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2030년까지 17억 7,8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li> <li>•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도의 관심은 스트리밍 플랫폼, 영화,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굿즈와 관련된 상품화에서도 큰 수익을 창출</li> <li>• 특히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인도 내 애니메이션 및 만화 콘텐츠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웹툰을 제공하는 인도 웹툰 애플리케이션 Kross Komics는 누적 다운로드 수 300만 건을 돌파</li> <li>• 인도 토종 웹툰 플랫폼으로는 Toonstra가 있음</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소비자층에게 인기가 많은 한국 드라마 원작 웹툰을 제공해 독자층 확대</li> <li>• 기업은 웹툰의 출판 및 홍보를 위해 주요 웹 출판 업체와 제휴를 통한 진출이 가능</li> </ul>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수출 기회 다변화	• (종합) 서남아 종합 품목 사절단(온라인) - 지자체 협업 종합	3월/뉴델리·암다바드·첸나이
	• (소비재) 인도 주요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 지자체 소비재 사절단과 연계 진행	5월/뉴델리·첸나이·콜카타
	• (식품) Sial 전시회 한국관 구성	9월/뉴델리
	• (종합) 인도 수출 유망기업 바이어 연결 지원 사업	연중/뉴델리
	• (소비재) 인도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연중/암다바드
글로벌 GVC 대응	• (전기차) 2025 태국-인도 전기차, 전기차 부품 무역사절단	3월/첸나이
	• (미래차) 2025 한-인도 미래자동차 파트너링 플라자 - 인도 내 글로벌 완성차 생산기업 참가	6월/첸나이
	• (인프라) 인프라/신재생에너지 미래산업 파트너십	7월/뉴델리
	• (전기/전자) SemiConnect 연계 반도체 수출상담회	7월/암다바드
	• (반도체) Semicon India 한국관 구성	9월/뉴델리
	• (소비재) 아마존 인디아 입점 지원 - 인증 및 입점 프로세스, 마케팅 관련 지원	연중/벵갈루루
	• (의료) 의료장비 공급망 진입 지원	연중/벵갈루루
다양한 분야의 투자 진출 촉진	• (자동차) 인도 전기차 특화 무역사절단	3분기/첸나이
	• (투자) 한-인도 경제협력 포럼	연중/뉴델리
對인도 통상 협력 확대 및 기존 무역 투자 기반 활용	• (투자) 글로벌 투자자 미팅	1분기/첸나이
	• (인프라) IFAT 2025 한국관 사업 - 인도 최대 수처리 전시회에 한국관 운영	3분기/뭄바이
	• (원전) INBP 포럼 한국관 사업 - 원전 산업 관련 비즈니스 행사에 한국관 운영	3분기/뭄바이
	• (소비재) Cosmoprof India 2025 한국관 사업 - 인도 최대 화장품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 운영	4분기/뭄바이
	• 타밀나두 진출 기업 규제 동향 긴급 온라인 설명회 - 총영사관, 회계법인 공동 추진, 비즈니스 정보 제공	반기별 1회/첸나이
	• 남인도 진출 기업 경제 동향 웨비나 - 총영사관과 공동 추진, 비즈니스 정보 제공	반기별 1회/첸나이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SR) 팀코리아 한-인도 경제협력 CSR</li> </ul>	반기별 1회/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 Swad Korea, Gunbae Korea (K-푸드 인도 진출 지원) - 국내 식품 주류기업 대상 설명회 및 판촉전 추진</li> </ul>	연중/뭄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진출) 인도 정부기관 네트워크 구축</li> </ul>	연중/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진출) 진출 기업 수출 지원, 투자 상담 및 자문, 한국 기업 현지 진출 지원</li> </ul>	연중/뉴델리, 첸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진출/구인구직) 한국인의 인도 현지 취업 지원 및 인도인의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취업 지원</li> </ul>	연중/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PA) CEPA 활용 지원 센터 운영 및 통관·인증 애로 해소</li> </ul>	연중/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희망 기업 맞춤형 매물 발굴</li> </ul>	연중/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코리아) 인도·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 협업, 주요 이슈 대응</li> </ul>	연중/뉴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 공급망 거점 무역관 수행 - 국내 기업의 해외 대체 공급선 검증 및 신규 발굴</li> </ul>	연중/뉴델리

## 첨부 4

##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헌법 제정일 (Republic Day)	1월 26일	대통령 연설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8월 15일	총리 연설
(지방선거) 델리주, 비하르주	델리주 / 2월 비하르주 / 10월	Legislative Assembly election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인도 2025/26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	2월 1일	-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5 인도 첸나이 청년 기업가 학교 콘퍼런스 Young Entrepreneur School Conference 2025	1월 4~5일	첸나이
인도 의료기기 엑스포 India Medical Expo	1월 5~7일	벵갈루루
2025 인도 바라트 자동차 글로벌 엑스포 Bharat Mobility Global Expo	1월 17~22일	뉴델리
인도 제지 전시회 (Paperworld India, PWI)	1월 23~25일	मुंबай
인도 기프트쇼 (Corporate Gifts Show)	1월 23~25일	मुंबай
인도 벵갈루루 공작기계 전시회 (IMTEX 2025)	1월 23~29일	벵갈루루
2025 인도 국제 가죽 전시회 India International Leather Fair 2025	2월 1~3일	첸나이
공업 전시회 ENGIEXPO	2월 1~3일	수랏
2025 인도 첸나이 식품 전시회 Food Expo 2025	2월 6~8일	첸나이
인도 벵갈루루 석재 박람회 (STONA 2025)	2월 12~15일	벵갈루루
인도 에어로 인디아 (Aero India 2025)	2월 12~16일	벵갈루루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5 인도 첸나이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시회 EV & ESS Expo 2025	2월 13~15일	첸나이
2025 인도 첸나이 재생에너지 전시회 Renewable Energy Expo 2025	2월 13~15일	첸나이
2025 인도 첸나이 전자 공급망 소싱 전시회 Source India 2025	2월 18~19일	첸나이
인도 홈/퍼스널케어 전시회 Home and Personal Care Ingredients Exhibition and Conference	2월 18~19일	मुंबай
인도 2025 금속 및 야금 엑스포 Metal & Metallurgy Expo 2025	2월 20~22일	뉴델리
2025 인도 첸나이 물 전시회 WATER TODAY'S WATER EXPO	2월 26~28일	첸나이
2025 인도 국제 식품 및 호스피탈리티 박람회 Aahar 2025 - International Food & Hospitality Fair	3월 5~9일	뉴델리
2025 인도 목재 산업 전시회 NDIAWOOD 2025 - Indian Timber Industry Exhibition	3월 6~9일	그레이터 노이다
2025 인도 코임바토르 유제품 전시회 Dairy Expo 2025	3월 6~8일	코임바토르
컨버전스 인디아 엑스포 Convergence India Expo	3월 19~21일	뉴델리
스마트시티 인디아 Smart City India Expo	3월 19~21일	뉴델리
2025 인도 남부 자동화 전시회 Automation Expo South 2025	3월 19~22일	첸나이
2025 인도 첸나이 여행 & 관광 박람회 Travel & Tourism Fair 2025	3월 21~23일	첸나이
정수, 수처리 전시회(WAPTAG EXPO) Water Purification & Treatment Asso. Gujarat	3월 26~28일	간디나가르
2025 인도 첸나이 고무 전시회 India Rubber Expo in Chennai 2025	4월 3~5일	첸나이
LED 박람회 (LED Expo Mumbai)	4월 3~5일	मुंबай
인도 철강 전시회 (INDIA STEEL)	4월 24~26일	मुंबай
인도 화학약품 전시회 (ChemProTech India)	4월 29~30일	मुंबай
2025 인도 우주 탐사 글로벌 콘퍼런스 Global Space Exploration Conference 2025	5월 7~9일	뉴델리
2025 인도 첸나이 기계장비 전시회 ACMEE 2025	6월 19~23일	첸나이
인도 물류 및 공급망 전시회 India Warehousing Show - Logistics Warehouse Exhibition	6월 26~28일	뉴델리
2025 인도 첸나이 건축 인테리어 전시회 Architect Interior Expo 2025	6월 26~29일	첸나이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국제 섬유기계 전시회 Surat International Textile EXPO	7월	수랏
2025 인도 제약·화학 전시회 Pharma lab chem Expo 2025	7월 4~5일	첸나이
인도 섬유 및 액세서리 전시회 Fabrics & Accessories Trade Show	7월 10~12일	델리
2025 인도 첸나이 사진 및 이미지 전시회 Image Today-Chennai 2025	7월 19~21일	첸나이
인도 선물 및 기념품 전시회 Gift World Expo- India Gift show	7월 24~26일	델리
2025 인도 첸나이 의류기기 전시회 Medicall Expo 2025	7월 25~27일	첸나이
인도 식품 및 기술 전시회 (Anuga FoodTec)	8월 (잠정)	뭄바이
인도 의류 및 섬유기계 박람회 Gartex Texprocess India	8월 21~23일	델리
인도 수처리 전시회 (IFAT)	10월 (잠정)	뭄바이
인도 국제 무역 박람회 India International Trade Fair	11월	뉴델리
인도 뷰티 전시회 (COSMOPROF India)	12월 (잠정)	뭄바이
인도 그린 에너지 엑스포 (Vibrant Green Energy Expo)	12월	암다바드
인도 제지 산업 전시회 Paperex India 2025 - Paper Industry Exhibition	12월 3~6일	뉴델리
인도 벵갈루루 건설기계 박람회 (EXCON 2025)	12월 9~13일	벵갈루루
인도 국제 메가 트레이드 전시회 India International Mega Trade Fair 2024-25	12월 20일~1월 6일	콜카타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한송옥	과장	뉴델리 무역관	+91-11-4230-6310	songok.han@kotra.or.kr
2	원유정	과장	뭄바이 무역관	+91-22-4925-5405	yujeong514@kotra.or.kr
3	이민형	차장	첸나이 무역관	+91-44284-72281	ray.lee@kotra.or.kr
4	이윤진	과장	벵갈루루 무역관	+91-80680-99202	yjlee@kotra.or.kr
5	박영선	관장	콜카타 무역관	+91-33-4055-8123	yspark@kotra.or.kr
6	김규남	관장	암다바드 무역관	+91-79-49131-130	knkim@kotra.or.kr

# 2025 인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